

I. 사업개요	1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2. 문화예술교육에서 학습과제분석의 필요성	4
3.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7
II. 문화예술교육 학습자로서의 노년의 특성	9
1. 노년의 정의	9
2. 노년학습과제 연구의 방향	12
3. 노년의 특성	14
III. 노년 문화예술교육 학습과제 제안을 위한 설문분석	25
1. 조사개요 및 문항구성	25
2. 조사결과	29
3. 노년의 여가, 삶에서의 가치와 고민	34
4. 문화예술교육 참여경험과 필요성 및 목적	49
IV. 노년 문화예술교육 학습과제 제안을 위한 타겟그룹 별 심층면담	61
1.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61
2.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73
3.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85



V. 학습과제 제안과 활용방안	109
1. 타겟그룹 별 학습과제 도출	109
2. 노년 학습과제 영역과 유형	114
3. 활용방향	113

별첨1. 노년 문화예술교육 학습과제 워크숍	121
1. 워크숍 개요	121
2. 버킷리스트와 인생마무리	123
3.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125
4. 청춘 놀이터	127
5. 공간 너머 공감	130
별첨2. 설문지	133
참고문헌	136

## 표 목 차

<표 1> 타겟그룹 별 응답자 수	26
<표 2> 문항구성	27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0
<표 4> 타겟그룹 별 일반적 특성	33
<표 5> 가용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장점	34
<표 6> 가용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단점	35
<표 7> 여가시간 활용	36
<표 8> 주로 머무는 장소	37
<표 9> 여가시간 활용과 주로 머무는 장소	38
<표 10>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39
<표 11> 연령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40
<표 12> 소득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40
<표 13> 문화예술 또는 평생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41
<표 14> 타겟그룹 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42
<표 15> 삶에서의 고민	43
<표 16> 성별에 따른 삶에서의 고민	44
<표 17> 연령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45
<표 18> 학력별 삶에서의 고민	46
<표 19>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삶에서의 고민	47
<표 20> 타겟그룹 별 삶에서의 고민	48
<표 21>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49
<표 22> 연령별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49
<표 23> 학력별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50
<표 24> 소득별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50
<표 25>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51
<표 26> 타겟그룹 별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51
<표 27>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52
<표 28> 연령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52

〈표 29〉 학력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53
〈표 30〉 소득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53
〈표 31〉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54
〈표 32〉 문화예술 또는 평생교육 경험에 따른 필요성 .....	55
〈표 33〉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어려움 .....	55
〈표 34〉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 .....	57
〈표 35〉 참여경험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 .....	58
〈표 36〉 타겟그룹 별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 .....	59
〈표 37〉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심층면담 요약 .....	61
〈표 38〉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심층면담 요약 .....	73
〈표 39〉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연령 .....	74
〈표 40〉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직업 .....	74
〈표 41〉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학력 .....	75
〈표 42〉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소득 .....	75
〈표 43〉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삶에서 중요한 점 .....	75
〈표 44〉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참여의 어려움 .....	76
〈표 45〉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심층면담 요약 .....	85
〈표 46〉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아차도 문화예술교육 활동 진행경과 .....	92
〈표 47〉 노년 학습과제 유형분류 .....	117

## 그림 목 차

[그림 1] ADDIE 모형 .....	5
[그림 2] 사업 추진체계 .....	7
[그림 3] 사업 추진 절차 .....	8
[그림 4] 주요국가별 노년부양비 .....	15
[그림 5] 소득 상위 10%와 하위 90%의 나이별 평균 순자산 .....	19
[그림 6] 나이별 순자산과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 .....	19
[그림 7] 희망하는 자기계발 교육프로그램(2009 서울서베이 기준) .....	23
[그림 8]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 현재의 고민 .....	65
[그림 9]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 삶에서 중요한 점 .....	67
[그림 10]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 참여의 어려움 .....	66
[그림 11]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 참여의 목적 .....	67
[그림 12]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연령별 고민거리 .....	76
[그림 13]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연령별 참여목적 .....	77
[그림 14]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성별에 따른 삶의 영향을 준 매개체 .....	88
[그림 15]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학력별 삶의 영향을 준 매개체 .....	89
[그림 16]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소득별 삶의 영향을 준 매개체 .....	89
[그림 17]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성별에 따른 능력발휘 기회 여부 .....	90
[그림 18]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학력에 따른 능력발휘 기회 여부 .....	90
[그림 19]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소득별 능력발휘 기회 여부 .....	91
[그림 20]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 방법 .....	91
[그림 21]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 장소 .....	92
[그림 22]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학력별 여가시간 활용 장소 .....	93
[그림 23]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소득별 여가시간 활용 장소 .....	93
[그림 24] 노년의 학습과제 영역 구분 .....	114
[그림 25] 노년의 과제 활용방향 .....	118
[그림 26] 노년의 과제 활용방향 예시 .....	119

## I. 사업개요

###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 노년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배경

##### □ 생애주기별 수요와 요구에 맞춘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이후 국민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여 국민 누구나 더욱 손쉽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함
- 특히나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문화예술교육 전반에서 소외되었던 생애 전반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개발해 추진하는 등 사회의 상층을 치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자 함
-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시는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시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접근성 강화, 문화예술 교육기반과 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3대 목표, 6개 전략, 25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적었던 노년 세대를 중심으로, 복지적 관점이나 돌봄의 관점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학습자로 보는 동시에, '인천'이라는 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

- 1 -

##### □ 인천형 노년의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인천은 산업화, 근대화 시기에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물류의 통로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기계 산업, 공단 등의 배후지를 가진 곳이며 서울의 위성도시로 부천, 부평이 연결되면서 거대한 주거지로 확장해왔음
-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인천의 지리적 특성, 해양교통의 요지 역할을 하며 개항을 겪은 역사적 특성상 인천 시민은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실제 참여도가 낮음(이윤희, 2002)
- 문화적 측면에서, 인천은 "개항"이라는 역사와 함께했기 때문에 '최초의 공원', '최초의 철도', '최초의 무역상' 등의 최초의 근대 문물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함(신성회, 2008)
- 타 지역과의 평생교육의 참여의사 측면을 비교하기 위해 충남지역을 조사한 강현경, 김윤경(2017)의 연구에 따르면, '있다'는 45%, '없음'과 '잘 모름'이 각각 30%, 25%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참여 의사를 물어보았을 때 '있다'는 93%, '없다'는 7%로 응답 결과가 매우 상이했음
- 따라서 기계공업, 물류, 신도시 이주, 국제도시와 공항, 송도와 수많은 섬의 문화와 산업 등의 층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삶의 환경에서 쌓인 경험과 문화를 가진 도시로 인천의 노년만이 가지는 차별화하는 특성을 찾아야 함
- 다면적인 인천의 노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천만의 특수성을 가진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신들의 삶을 배경으로 이해하고 성찰하고 변화하는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봄

- 3 -

### 2) 노년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필요성

##### □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

- 노인은 집단 내에서 보면 이질적인 집단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인교육을 논할 때는 한 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며(Battersby & Glendenning, 1992), 주로 복지 수혜자나 주변인, 취약계층으로 바라보려는 관점이 대부분이며 주체적인 학습자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같은 노년 집단이라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으며, 주체적인 학습자로서의 학습욕구 조사가 필요하고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 노년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실태

-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에 따르면, 고령자(만 65~79세)의 평생교육(형식교육+비형식교육) 참여율은 32.4%로 고령자 10명 중 3.2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음. 이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임
- 2007년에서 2019년까지 전체 연령대의 평균 참여율은 29.9%에서 43.4%까지 증가하였지만, 만 55세~64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3.9%에서 37.1%로 여전히 10명 중 4명도 안 되는 참여율을 보였음.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만 25세~34세의 연령대가 36.3%에서 50.6%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1년부터 시작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노년기 대상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이 급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참여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전수경, 류숙희, 2016)

- 2 -

### 2. 문화예술교육에서 학습과제분석의 필요성

#### 1) 교수설계의 필요성

- 교육을 함에 있어서 목표한 바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설계가 필요함
- 교수설계는 매개자 강사나 기획자가 계획하는 학습과정계획으로 학습자 혹은 교육참여자에게서 기대하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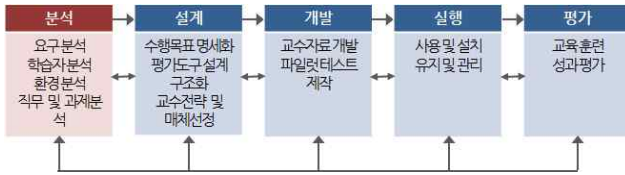
#### 2) 교수설계

##### □ 교수설계의 전제조건

- 수업의 설계에서 Gagne와 Briggs(1992)은 수업설계의 전제조건으로 다음을 제시
  - '교수설계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각 학습자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교수설계는 인간학습 원리에 기초해야 하며 원하는 학습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학습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교수설계는 수업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들이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도록 계획해야 한다(이경호, 2005. 04. 28.).'
-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경험한 노년세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에서는 학습자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특성분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

- 4 -

## □ ADDIE 교수설계 모형



[그림 1] ADDIE 모형

- 교수설계방식에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 가운데 ADDIE 모형은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모형으로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및 평가(evaluation)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의 영문 앞 글자를 따서 ADDIE 모형으로 부름
- ADDIE 모형에서 보면 학습과제는 분석과정에서 학습자에 대한 요구조사과 학습자 분석, 환경분석을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의 과제 즉 Task를 계획하는 단계임

## 3) 학습과제 분석의 목표

- 학습과제의 분석은 교육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으로 학습목표 분석과 그 목표를 구성하는 하위기능분석으로 이루어짐
- 학습과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가르치고 학습할 학습요소의 종류, 규모, 내용범위, 깊이 등을 확정하고 이들 간의 위계, 순서, 상호연관성, 논리체계 등을 정함으로써 학습의 체계를 만들어내며 중복이나 누락을

피하고, 미진한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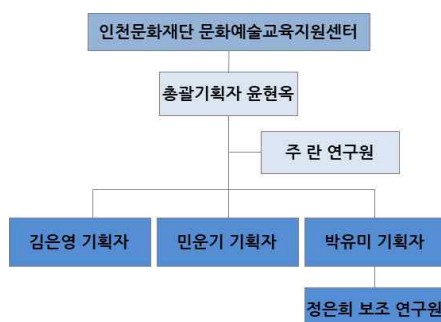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능력과 창조력을 함양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
- 학교교육에서처럼 체계적으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의 환경, 선수학습의 내용과 수준, 학습요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토대로 필요한 학습과제를 분석함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
- 특히 노년에 대해서는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으로 바라보고 분석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각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의 층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과 조건들이 있어 유형을 찾기도 욕구를 구체화하기도 어려워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전에 기본적인 학습자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학습의 목표와 범위, 내용영역을 그려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3.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1) 사업 추진체계

#### □ 사업 추진체계

- 본 사업의 추진 체계는 [그림 1]과 같음
-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였음
- 연구진의 경우, 윤현옥 총괄기획자를 주축으로 기획자 별 타겟그룹을 설정하여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하고 연구함
-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조사한 김은영 기획자,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민운기 기획자,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박유미 기획자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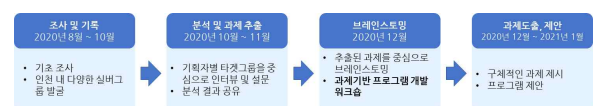


[그림 2] 사업 추진체계

### 2) 추진 절차

#### □ 사업 추진 절차

- 본 사업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지역적 특수성, 다양한 실버그룹 발굴을 위한 기초 조사
- 노년기 중 세부 특정 타겟그룹 별 특징 조사(인터뷰 및 설문 진행)
- 노년기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현황 및 요구 분석
- 타겟그룹 별 문화예술교육 과제추출
- 구체적인 과제제시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 과제기반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 구체적인 과제 제시
- 프로그램 제안



[그림 3] 사업 추진 절차

## II. 문화예술교육 학습자로서의 노년의 특성

### 1. 노년의 정의

#### 1) 법적 기준의 노인

- 법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명칭조차도 법에 따라 노인, 고령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 같은 법체계 내에서도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 고용법)

- ※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노인복지법

-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 신중년(≒베이비부머, 중장년, 예비노인)

- 50~69세인 5060세대를 신중년 또는 베이비부머, 중장년, 예비노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함(양지훈, 서중수, 2020; 임정미, 2020)

□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 베이비부머 세대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구분하기도 하는데,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1963년 출생자를 의미하며,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968~1974년 출생자를 의미함(이태열, 202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28.>
  -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
  - 2. 경로당 : 65세 이상의 자
  - 3. 삭제 <2011. 12. 8.>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 2) 다양한 노인 분류

□ 노년 전기(the young old), 노년 후기(the old-old)

- 주요 문헌에서는 Neugarten, Moorn과 Low(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75세 미만을 노년 전기(the young old), 75세 이상을 노년 후기(the old-old) 구분함

□ 연소 노인(the young old), 고령 노인(the old-old), 초고령 노인(the oldest old)

- 간혹 세분화하기 위해 65세~74세를 연소 노인(the young old), 75세~84세를 고령 노인(the old-old), 85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the oldest old)라고 분류함(이인정, 2017)

## 2. 노년학습과제 연구의 방향

### 1) 학습자 분석을 통한 다양한 학습과제 도출 필요

-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학습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학습자 분석임. 학습자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특성과 니즈를 분석하여 학습과제를 설정하고 이 토대 위에 프로그램 안을 계획했을 때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의 주 학습계층은 학생들이 중심이었고 유아로 확장하고 있으나 노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 또한, 노년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전체 인구에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은퇴를 맞이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직업 세계에서 은퇴하였으나 한동안 여전히 활력있는 노년 생활을 즐기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문화 주체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년세대에 대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노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기대수명이 늘어 노년으로 보내게 되는 시간도 많아지고, 여가와 소일거리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인생 설계에 준하는 준비가 필요해짐

## 2) 다양한 층위의 노년에 맞춘 프로그램 다양화

- 노년은 60대에서부터 100세에 이를 정도로 연령의 층이 많고 살아온 경험과 출신, 교육수준, 연령, 가치지향, 경제력, 학습력, 신체능력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층위를 이루고 있음
- 60대와 70대, 80대가 각각 겪어온 시대가 정치적,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 요구의 수준과 내용 역시 매우 다층적이고 다양한 양상을 지님
-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도 가장 많고 산업화와 근대화의 고도성장기를 겪으며 매우 다이내믹한 경험을 쌓았으며 풍부한 성취 경험을 쌓아 인적자원으로써의 가치를 가지지만 은퇴로 인해 활용이 어려워짐
- 대부분이 문화예술 경험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도 높은 편
- 또한, 기성세대의 부모세대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유지 고수하려는 성향을 가지면서 젊은 자식 세대들의 변화한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노쇠하여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혹은 취약계층으로 이해하고 복지적 관점과 돌봄의 태도로 접근하여 교육프로그램 역시 다양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새로운 노년층에 대한 다면적인 조사와 기록을 통해 노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13 -

## 3. 노년의 특성

### 1) 일반사항

#### □ 노년 분류

- 일반적으로 노년을 하나의 세대나 계층으로 보기에는 각각 세대별, 연령별, 성별, 수입과 학력 수준, 삶의 경험에 따라 매우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어 단순히 연령으로만 구분하기 어려움
- 노년기를 60세 이후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가 절반인 60대는 초반기 노년기로, 70대는 중반기 노년기로, 80세 이후부터는 후반기 노년기로 구분해서 보고자 함

#### □ 압축성장의 경험

- 이들은 각기 한국사에서 전쟁과 독재, 경제부흥, 민주화운동이라는 매우 큰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들을 겪은 세대이지만 또 각 세대마다 상이한 영향을 받음
- 전쟁 이후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를 경험하면서 물질적 부를 이룬 대신 사회갈등이 커지고 빈부격차도 높아지면서 삶의 가치, 철학 등에 차이가 발생
- 성공시대에 대한 자부심이 높지만, 정치적 입장이나 철학을 공유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소통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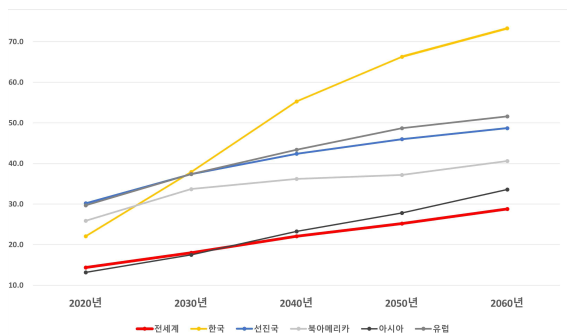
#### □ 노년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양비 등 사회적 과제

- 통계청(2019b)의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는 생산가

- 14 -

능인구 6.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18년에는 5.1명, 2030년에는 2.6명, 2050년에는 1.3명, 2065년에는 0.9명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주요 국가의 노년부양비<sup>1)</sup>를 비교했을 때 [그림 3]과 같이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2030년부터 선진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노년부담비 증가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해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연금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불안 등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초래하며 전통적 가족문화 약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부양책임 문제 대두할 것이라고 전망



[그림 4] 주요국가별 노년부양비

1) 노년부양비: 총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

- 15 -

#### □ 처음 맞이하는 매우 긴 노년 시기

- 불과 3~40년 전만 해도 60을 환갑이라고 해서 살아남아 있음을 축하하던 시대와 달리 현재의 노인들은 60에도 직업을 그만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하지만, 사회제도는 여전히 60세에 정년을 맞이하고 경제, 사회활동을 접어야 함
- 정년이나 은퇴 이후 살아갈 기간 역시 길어져 노후비용도 더 많이 필요해지지만, 수입은 점차 줄거나 없어지는 상황에 직면,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 등에 투자하면서 노후대비는 더욱 부족해짐
- 60대는 이전의 노년과 비교할 때 약 15~20세 정도 젊게 살아간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활동력을 갖추고 경제력도 최고에 도달하는 시기로 주도적으로 취미, 여가활동을 찾고 즐김

#### □ 잔여기간이 아닌 새로운 인생과 마무리

- 전반적으로 과거와 달리 노년을 인생의 잔여적 기간으로 보지 않고 인생의 후반부로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로 보아야 함(곽노필, 2019. 04. 22.)
- 현재의 60대는 학습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노동 욕구도

- 16 -

강한 편임. 따라서 실제 노동이나 창업에 필요한 실용성을 갖춘 교육이 필요하고 청소년기에 누리지 못했던 장르 예술 습득에 관심이 높음

- 점차 경제활동을 줄여가는 70대까지도 다양한 여가, 문화요구가 높고 활동력, 경제력을 갖추어 적극적인 학습이 가능한 노년으로 볼 수 있음
- 점차 노동력을 잃어가는 80대 이후는 안정적인 노후생활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로 돌봄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 세대별 정치·사회적 차이 존재

- 80대는 전쟁을 겪은 세대로 전후 복구와 가난의 경험이 삶의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침
- 70년대는 본격적으로 경제부흥기를 경험하고 주를 축적하고 전통과 가부장적 가치를 재생산
- 60대는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정치 민주화로 인한 역동적인 시대에 청년기를 보냄

## 2) 경제적 특성

### □ 경제개발시대의 경험

- 현재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대부분 개발독재라고 불리던 고도경제발전 시기의 산업화, 도시화의 변화를 경험하며 풍부한 일자리, 빠른 경제성장과 그 성과를 직접 만들거나 수혜를 받음
- 산업적으로 최빈국, 개발대상국, 원조물자를 받던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직접 참여하거나 경험하며 자신감을 얻음
- 특히 60~70대는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고 풍부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며 대부분 소득이 안정되고 부를 축적하여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은 대부분이 자가를 소유하거나 일정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9a)

### □ 자산의 형성과 경제생활

- 통계청(2019a)의 주택소유자 현황자료를 보면 "연령별로는 50대가 3,601천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40대 23.6%, 60대 18.8%, 30대 12.9%, 70대 11.0% 등의 순이며, 40~50대 연령층이 전체 소유자의 절반(49.3%)을 차지하는 것으로 비교적 노년층의 자산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경제적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자산을 보유, 가장 소득수준이 높고 자산도 많으며 은퇴기에 속한 65세에 자산의 정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수도권 60대 대부분이 자가를 소유하거나 일정 수준의 자

2) 가구특성별 주택 소유율을 보면, 가구주 연령대가 70대인 가구(69.4%), 가구원수는 5인 이상인 가구(74.9%), 세대구성은 3세대 이상인 가구(79.2%)에서 높게 나타남.

산을 형성하고 있다고 함



[그림 5] 소득 상위 10%와 하위 90%의 [그림 6] 나이별 순자산과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  
나이별 평균 순자산 (곽노필, 2019. 04. 22.)

- 한편 고도성장 신화의 한 가운데서 외환위기로 실직, 규제금융의 충격을 경험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과 경쟁체제에 몰입하게 됨
- 70년대부터 시작한 부동산, 증권 등 다양한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였으나 참여, 성공과 실패로 인한 자산수준에 편차가 있음
- 소비방식은 노후자금에 부족하지만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하고자 하고, 최근에는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짐

#### □ 복지와 노인빈곤 문제

- 최초의 연금세대로 노령연금을 받게 되지만 충분한 수준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노후를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따라 노후 삶에 차이가 생기게 됨
- 자식 뒷바라지, 노후준비 부족, 다시 노동시장으로, 단순노무직 위주 일자리에도 내몰리는 상황으로 나이가 들수록 빈곤율이 높아짐, 건강 불평등 악순환

- 75세까지 노동 의지가 높고 대부분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하나 신체적인 노화와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

## 3) 정치적 특성

- 70세 이상 세대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군부독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독재로 인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 현재의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음
- 특히 이 시대에 농촌의 가난에서 탈출하여 도시 노동자로 일하며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상상을 꿈꾸었던 남성 가장들은 전 국민이 단합해서 국가주도의 이데올로기에 복무함으로써 성공을 만들었다는 신화에 대한 향수가 많으며 과거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보수성을 가짐
- 80세 이상 세대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신념이 강하고 젊은 세대의 정치적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 제도정치권에서는 노년 세대가 과잉대표하고 있음. 장기집권 50대 이상 비중 82.3%, 정치인들의 평균나이 55세(인구는 50대 이상 46.3%, 45세 이하 인구 45% 의원 6.3%)이상으로 편중된 편

## 4) 복지적 특성

- 우리 사회가 처음 맞이하는 고령화 사회로 이전 세대들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 노년을 맞는 세대는 자식들에게 노년을 의탁할 수 없으며 연금제도의 첫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여 스스로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긴 세대

- 서울특별시 정책리포트(변미리, 2010)에 의하면 교육수준, 건강, 경제력에 따라 부양비 산정 요구가 있음
- 노년이 되었다고 해도 노동력, 고학력과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의 복지정책이 필요
- 노년복지의 대안과 과제는 일하는 노인, 노블리스 오블리주, 자연친화적 삶,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라고 함
- 즉 과거와는 달리 노인이 되고 은퇴를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으므로 최대한 노동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노인돌봄 역시 서로 돌봄과 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성장일변도의 시대를 극복하고 자연과 환경을 배려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며 다른 세대들과의 입장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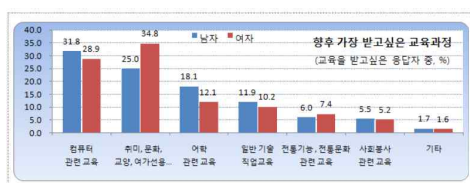
## 5) 사회적 특성

- 노년을 맞이하고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60년생 869만명 생존 최대)
- 가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개인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자산의 대부분을 자녀들의 교육자금과 결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은퇴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교육수준 분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46%이상은 고졸학력을 가지고 있고, 약 25% 이상은 중학 졸업 이하의 학력이어서 전체적으로는 70% 이상이 고졸 이하의 학력(2005년 기준 30대 중에서는 48% 이상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 서울의 베이비부머의 36.5%는 대

- 졸, 26%는 전문사무직 고학력집단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 월소득 400이상이 50%, 59%는 자기주택 소유)
- 베이비붐세대들은 가족 중심적, 자녀중심 가치체계(자녀중심 결정, 자녀를 위한 희생)를 가진 반면 부부중심에 대한 태도는 고령세대와 유사, 이웃관계는 소극적이나 노력 중, 자기계발 욕구가 강함(변미리, 2010)
- 고도 성장기, 산업화에 시대를 겪으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함
- 사회적으로 대학졸업, 결혼, 아이 2명을 낳고(산아제한으로 1~2명), 신도시에 집 마련하고 최초로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경험하며 삶의 문화가 변화
- 역동적인 시대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58년생 무시험 중학배정, 고교평준화, 공나물교실, 3부제 등)
- 젊은 세대들과 가치관, 정치적 입장의 차이, 소통의 부재로 갈등이 증폭하고 있어 세대갈등이 되지 않도록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시대의 도래라는 기술변화로 사회적 변화를 예상하지만 노년세대들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습득도 부족하고, 가치관의 변화나 사회혁신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

## 6) 학습자로서의 특성

- 소 팔아 장남을 서울로 유학시키는 개발 시기의 신분 상승을 신봉하며 학습을 신화화하는 경향이 있음
- 70년대의 대학진학률은 남성 29%, 여성 20%로 대학생 수가 비교적 적어 대학교육에 대한 로망이 남아있는 편. 특히 비실용 분야로 여겨던 예술분야 학습에 대해 해소하지 못한 열망이 남아있음
- 학습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지식정보를 가르치거나 기술을 습득하는 Teaching방식의 관점에 머물러있어 스스로 배운다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실무 경험, 전문성과 업무지식이 많아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함(실무적 강요요구가 높고 일자리나 진로로 연결되기 바람)
- 노년기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실용적인 학습이 주를 이루어 문화, 예술관련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도도 낮은 편이고, 욕구는 있으나 접근법이나 방법을 몰라 해소하지 못함
-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높지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문화,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익히는 것은 두려워 함



[그림 6] 희망하는 자기 계발 교육프로그램(2009 서울서베이 기준)  
(변미리, 2010)

- 신체적 능력 약화에 따라 연령별, 수준별 맞춤형교육프로그램설계도 필요

## 7) 일반과제

- 노년기를 생애주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삶의 주체로서의 자기실현을 위한 결실기로 접근
- 교육의 목표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효과, 재사회화, 타인과의 교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과정이 필요
- 풀어야 하는 과제로는 미래불안감, 실업, 노후, 질병, 복지 요양 등의 사회안전망 부족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이 있음
- 노년의 문제를 노년이 스스로 함께 풀아가는 상호부조, 연결이 요구가 있음



### Ⅲ. 노년 문화예술교육 학습과제 제안을 위한 설문분석

#### 1. 조사개요 및 문항구성

##### 1) 조사개요

###### □ 조사기간

- 설문지 문항구성 이후 파일럿을 포함하여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음

###### □ 조사대상

-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되, 기획자 별 타겟그룹을 중심으로 조사함. 세부 타겟그룹은 아래와 같음
- 설문지는 최대한 타겟그룹의 특징에 맞춰 편의표집하였지만, 더 많은 응답자 수 확보를 위해 타겟그룹과 상이한 응답자도 분석에 포함하였음. 타겟그룹의 명칭은 제 4장과의 통일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명명함
  - 62~63세의 동질집단(파일럿)
  -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 원도심 내 산업화를 경험한 60대 남성
  -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 조사방법

- 종이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지를 병행하여 응답을 수집함.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종이 설문지로 진행함

###### □ 응답자 수

- 총 182명 중 본 설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9명을 제외하여 총 173명을 분석대상으로 결정
- 구체적인 응답자 수는 <표 1>과 같음

타겟그룹(기획자)	초기인원	제외인원	총 인원
62~63세의 동질집단 (윤현옥 총괄기획자)	21	0	21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김은영 기획자)	74	7	67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민운기 기획자)	30	1	29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박유미 기획자)	57	1	56
합계	182	9	173

<표 1> 타겟그룹 별 응답자 수

#### 2) 문항구성

- 기획자 간 회의와 협의를 통해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구성 내용은 <표 2>과 같음
- 전체 설문지는 [별첨 2] 참고

항목	내용
현재의 상황(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 여부</li> <li>• 여가시간활용 내용과 방법</li> <li>• 은퇴의 장·단점</li> <li>• 노년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li> <li>• 의식의 영향관계</li> <li>• 전문적 능력 발휘 정도</li> </ul>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을 접한 경험</li> <li>• 참여수준</li> <li>• 문화예술교육 경험에서 어려웠던 점</li> <li>• 필요성</li> <li>• 문화어젠다</li> </ul>
문화예술교육 활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가 되기</li> <li>• 창의적 역량강화</li> <li>• 지식 습득</li> <li>• 여가활용</li> <li>• 소통이해 역량강화</li> <li>• 직업적 역량강화</li> <li>• 자기존중감</li> <li>• 삶의 질 향상</li> <li>• 연대의식</li> </ul>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나이, 거주지, 인천연고, 이전직업, 학력, 예산 등</li> </ul>

<표 2> 문항구성

#### 3) 분석방법

- 통계프로그램인 STATA Version 16/MP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목적에 맞게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hi-squared test), T-검증(T-test),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등을 사용하였음

- 이하 그룹별 1위 항목의 값에 볼드체를 사용하였으며, 그룹별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항목 이름에 볼드체를 사용하여 표기하였음
- 분석한 내용은 그룹별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만 서술하였음.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기획자들의 의견에 따라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분석의 경우 추가 기술함
- 해당 분석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고 인천에 생업의 기반을 가진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분석하였지만,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밝힘
- 백분율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2. 조사결과

### 1) 일반적 특성

#### □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체 173명 중 남자는 53.7%, 여자는 46.3%로 구성비가 비슷하였음
  - 연령대로 살펴보았을 때 60대가 57.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0대(27.2%), 70대(11%), 80대 이상(4.6%) 순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응답자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80.9%), 인천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33명 중 27.3%인 9명은 인천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군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영업이 22.1%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직(16.9%), 교육/공무원(15.1%), 전문직(13.9%), 주부(13.4%), 회사원(11%), 무직(4.7%), 기타(2.9%) 순이었음. 이는 한국고용정보원(2018)의 보고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학력의 분포는 대졸(32.9%)가 가장 높았으며, 중졸이하(28.9%), 고졸(21.4%), 대학원 졸업 이상(11%), 전문대졸(5.8%) 순으로 나타났음
  -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베이비부머세대이므로, 세대의 특징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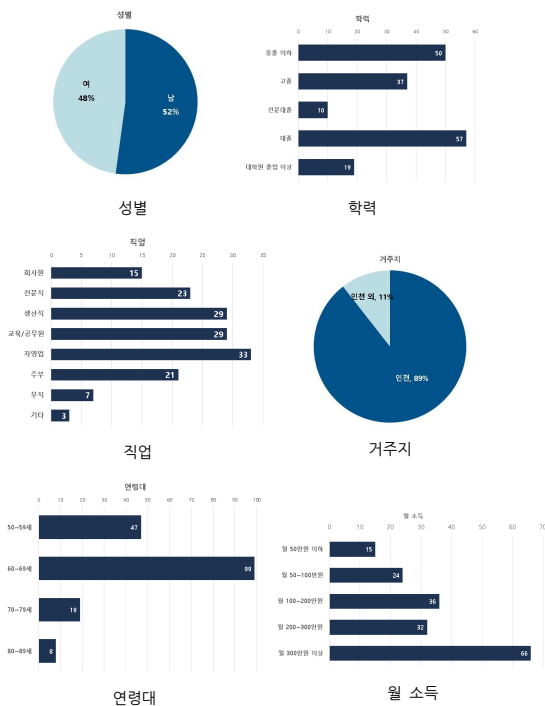
- 29 -

월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상(38.2%)이 가장 많았으며, 월 100~200만원(20.8%), 월 200~300만원(18.5%), 월 50~100만원(13.9%), 월 50만원 이하(8.7%)의 분포를 보였음

구분		빈도(%)
성별	남	93(53.7%)
	여	80(46.3%)
나이	50대	47(27.2%)
	60대	<b>99(57.2%)</b>
	70대	19(11%)
	80대 이상	8(4.6%)
거주지	인천	140(80.9%)
	인천 외	33(19.1%)
직업	회사원	19(11%)
	전문직	24(13.9%)
	생산직	29(16.9%)
	교육/공무원	26(15.1%)
	자영업	<b>38(22.1%)</b>
	주부	23(13.4%)
	무직	8(4.7%)
	기타	5(2.9%)
학력	중졸 이하	50(28.9%)
	고졸	37(21.4%)
	전문대졸	10(5.8%)
	대졸	<b>57(32.9%)</b>
	대학원 졸업 이상	19(11%)
월 소득	월 50만원 이하	15(8.7%)
	월 50~100만원	24(13.9%)
	월 100~200만원	36(20.8%)
	월 200~300만원	32(18.5%)
	월 300만원 이상	<b>66(38.2%)</b>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0 -



- 31 -

### 2) 타겟그룹 별 일반적 특성

#### □ 타겟그룹 별 일반적 특성

- 타겟그룹을 4가지로 나누었을 때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특성은 <표 4>과 같음
  - 파일럿으로 시행한 62~63세의 동질집단의 경우, 자영업을 하며 대졸인 경우가 많았고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인 경우가 조금 더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마찬가지로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함
  - 원도심 내 산업화를 경험한 60대 남성의 경우 모두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월 소득은 100~200만원의 범주에 속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음
  -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의 경우 모두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생산직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학력은 중졸이하가 많았으며, 월 소득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았음

		(인원수, %)			
구분		62~63세 동질집단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원도심 내 산업화를 경험한 60대 남성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성별	남	15(71%)	28(41%)	29(100%)	21(37%)
	여	6(29%)	39(58%)	0(0%)	35(62%)

- 32 -

연령	50대	0(0%)	25(37%)	4(13%)	18(32%)
	60대	21(100%)	39(58%)	12(41%)	27(48%)
	70대	0(0%)	2(2%)	7(24%)	10(17%)
	80대 이상	0(0%)	1(1%)	6(20%)	1(1%)
거주	인천	3(14%)	52(77%)	29(100%)	56(100%)
	인천 외	18(85%)	15(22%)	0(0%)	0(0%)
직업	회사원	6(28%)	10(14%)	2(6%)	1(1%)
	전문직	2(9%)	7(10%)	6(20%)	9(16%)
	생산직	0(0%)	3(4%)	2(6%)	24(42%)
	교육/공무원	0(0%)	23(34%)	2(6%)	1(1%)
	자영업	7(33%)	10(14%)	14(48%)	7(12%)
	주부	3(14%)	9(13%)	0(0%)	11(19%)
	무직	1(4%)	4(5%)	1(3%)	2(3%)
	기타	2(9%)	1(1%)	2(6%)	0(0%)
학력	중졸 이하	1(4%)	4(5%)	12(41%)	33(58%)
	고졸	8(38%)	4(5%)	11(37%)	14(25%)
	전문대졸	3(14%)	4(5%)	3(10%)	0(0%)
	대졸	9(42%)	41(61%)	3(10%)	4(7%)
	대학원 졸업 이상	0(0%)	14(20%)	0(0%)	5(8%)
소득	월 50만원 이하	1(4%)	3(4%)	2(6%)	9(16%)
	월 50~100만원	1(4%)	0(0%)	5(17%)	18(32%)
	월 100~200만원	3(14%)	13(19%)	12(41%)	8(14%)
	월 200~300만원	4(19%)	14(20%)	5(17%)	9(16%)
	월 300만원 이상	12(57%)	37(55%)	5(17%)	12(21%)

〈표 4〉 타겟그룹 별 일반적 특성

### 3. 노년의 여가, 삶에서의 가치와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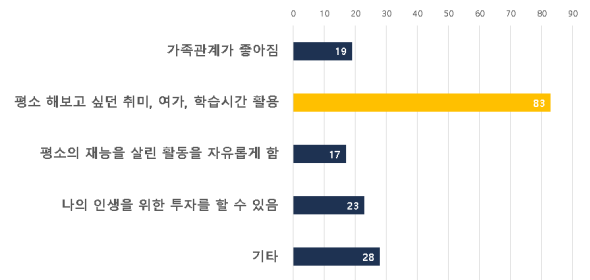
#### 1) 가용시간 활용

##### □ 가용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장점

-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시간이 줄면서 늘어난 가용시간의 장점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평소 해보고 싶던 취미, 여가, 학습시간 활용 (48%)'였음
- 기타 응답(16%)은 대부분 중복의견이었으며 '건강을 챙길 수 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등의 응답이 있었음

구분	명(%)
가족관계가 좋아짐	19(11%)
평소 해보고 싶던 취미, 여가, 학습시간 활용	83(48%)
평소의 재능을 살린 활동을 자유롭게 함	17(10%)
나의 인생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음	23(13%)
기타	28(16%)
합계	170(100%)

〈표 5〉 가용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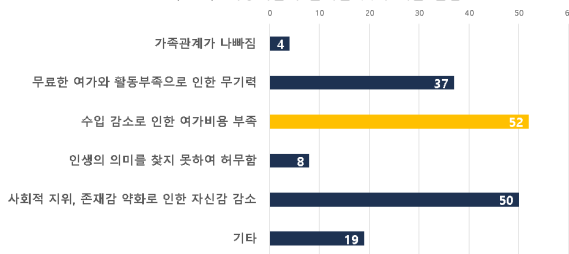


##### □ 가용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단점

- 늘어난 가용시간의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수입 감소로 인한 여가비용 부족(30%)', '사회적 지위, 존재감 약화로 인한 자신감 감소 (29%)', '무료한 여가와 활동부족으로 인한 무기력(21%)'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응답으로 '주변환경이 활동하기에 어려움', '경제적인 측면', '단점이 없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 등의 응답이 있었음

구분	명(%)
가족관계가 나빠짐	4(2%)
무료한 여가와 활동부족으로 인한 무기력	37(21%)
수입 감소로 인한 여가비용 부족	52(30%)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허무함	8(4%)
사회적 지위, 존재감 약화로 인한 자신감 감소	50(29%)
기타	19(11%)
합계	170(100%)

〈표 6〉 가용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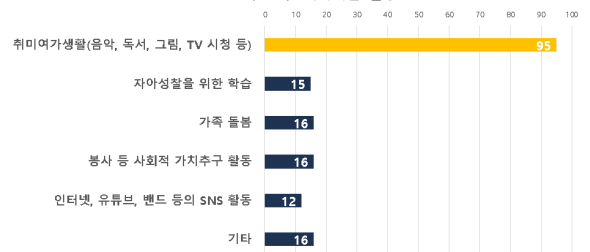
#### 2) 여가시간 활용

##### □ 여가시간 활용

- 응답자의 대부분은 여가시간을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5%), 기타 응답으로 '운동', '낚시', '종교활동', '산책', '친교모임', '거주지 환경 개선' 등의 응답이 있었음

구분	명(%)
취미여가생활(음악, 독서, 그림, TV 시청 등)	95(55%)
자아성찰을 위한 학습	15(8%)
가족 돌봄	16(9%)
봉사 등 사회적 가치추구 활동	16(9%)
인터넷, 유튜브, 밴드 등의 SNS 활동	12(7%)
기타	16(9%)
합계	170(100%)

〈표 7〉 여가시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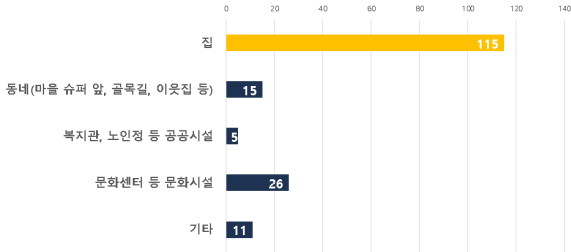


□ 주로 머무는 장소

- 경제활동시간과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을 물었을 때, 66%는 집이라고 응답했고, 15%는 문화시설이라고 응답했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뉴시터', '캠핑장', '공원' 등이 있었음

구분	명(%)
집	115(66%)
동네(마을 슈퍼 앞, 골목길, 이웃집 등)	15(8%)
복지관, 노인정 등 공공시설	5(2%)
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26(15%)
기타	11(6%)
합계	172(100%)

〈표 8〉 주로 머무는 장소



□ 여가시간 활용과 주로 머무는 장소

- 여가시간 활용과 주로 머무는 장소를 비교하였을 때, 주로 집에서 주로 음악, 독서, 그림, TV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65명)

여가	장소	집	동네	복지관, 노인정 등 공공시설	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기타	합계
취미여가생활		65	6	3	12	9	95
자아성찰을 위한 학습		8	1	0	6	0	15
가족 돌봄		13	2	0	1	0	16
봉사 등 사회적 가치추구 활동		8	1	2	5	0	16
SNS 활동		11	0	0	1	0	12
기타		9	5	0	1	1	16
합계		114	15	5	26	11	

〈표 9〉 여가시간 활용과 주로 머무는 장소

3)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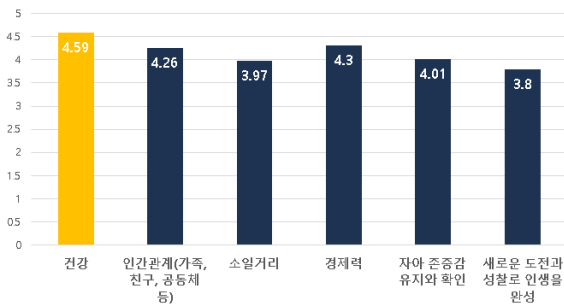
□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물었을 때, '건강(4.59)'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제력(4.3)', '인간관계(4.26)'이 뒤를 이었음
- 기타 응답으로는 '내적인 평안', '나이', '가족의 화합', '삶의 만족감', '식단관리', '지속적인 활동', '친구', '손주 양육', '배우자의 생존여부', '긍정적인 마인드' 등이 있었음

구분	평균(5점척도)
건강	4.59
인간관계(가족, 친구, 공동체 등)	4.26

소일거리	3.97
경제력	4.3
자아 존중감 유지와 확인	4.01
새로운 도전과 성찰로 인생을 완성	3.8

〈표 10〉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 연령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 연령에 따라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다른지를 보았을 때, 80대를 제외한 50, 60, 70대에서 모두 건강이 가장 중요했고, 80대의 경우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음
- 통계상으로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경제력(p-value=.000)', '새로운 도전과 성찰로 인생을 완성(p-value=.001)', '인간관계(p-value=.008)'이었음. '경제력', '새로운 도전과 성찰로 인생을 완성', '인간관계' 항목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항목임을 알 수 있음

구분	연령	50대	60대	70대	80대
건강		4.80	4.57	4.31	4.25
인간관계(가족, 친구, 공동체 등)		4.51	4.21	3.88	4.25**
소일거리		4.04	3.97	3.89	3.75
경제력		4.61	4.25	3.68	4.62***
자아존중감 유지와 확인		4.17	4	3.84	3.75
새로운 도전과 성찰로 인생을 완성		4.12	3.79	3.31	3.25**

\*\* p<.01, \*\*\* p<.001

〈표 11〉 연령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 소득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 모든 소득범위에서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50만원 이하, 50~100만원, 100~200만원 소득범위 경우 경제력이 2위,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소득범위인 경우는 인간관계가 2위였음
- 통계상으로 소득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인간관계(p-value=.006)'이었음. 따라서 소득별 가장 차이가 큰 항목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음

구분	소득	50 이하	50~100	100~200	200~300	300이상
건강		4.33	4.62	4.55	4.59	4.66
인간관계(가족, 친구, 공동체 등)		3.78	3.95	4.36	4.37	4.36**
소일거리		3.6	4.04	4.08	4.09	3.92
경제력		4	4.12	4.41	4.28	4.4
자아존중감 유지와 확인		3.86	3.91	4	3.93	4.13
새로운 도전과 성찰로 인생을 완성		3.46	3.5	3.75	3.96	3.95

\*\* p<.01

〈표 12〉 소득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 문화예술 또는 평생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 문화예술 또는 평생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평균이 높았지만,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소일거리' 항목은 평균이 더 높았음

- 두 집단의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자아존중감 유지와 확인(p-value=.031)'이었음. 따라서 문화예술 또는 평생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가장 차이가 있는 항목은 자아존중감 유지와 확인임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자아존중감 유지와 확인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구분 \ 경험여부	경험O	경험X
건강	4.66	4.48
인간관계(가족, 친구, 공동체 등)	4.27	4.24
소일거리	3.94	4.03
경제력	4.31	4.30
자아존중감 유지와 확인	4.12	3.84*
새로운 도전과 성찰로 인생을 완성	3.87	3.69

\*  $p < .05$

〈표 13〉 문화예술 또는 평생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 □ 타겟그룹 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 타겟그룹에 따라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타겟그룹은 전체 설문에서도 1위였던 항목인 '건강'이 1위였음. 하지만 산업화를 경험한 60대 남성의 경우, '소일거리' 항목이 1위였음
- 타겟그룹 별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건강(p-value=.000)', '소일거리(p-value=.026)', '경제력(p-value=.023)', '자아존중감 유지와 확인(p-value=.000)', '새로운 도전과 성찰로 인생을 완성(p-value=.007)'이었음. 따라서 타겟그룹 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인간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구분 \ 타겟그룹	62-63세 동질집단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원도심 내 산업화를 경험한 60대 남성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건강	4.28	4.71	4.13	4.8***
인간관계(가족, 친구, 공동체 등)	4.05	4.36	4.32	4.20
소일거리	3.67	3.92	4.38	3.95*
경제력	3.95	4.47	4.24	4.29*
자아존중감 유지와 확인	3.52	4.22	3.65	4.14***
새로운 도전과 성찰로 인생을 완성	3.43	4.08	3.59	3.75**

\*  $p < .05$ , \*\*  $p < .01$ , \*\*\*  $p < .001$

〈표 14〉 타겟그룹 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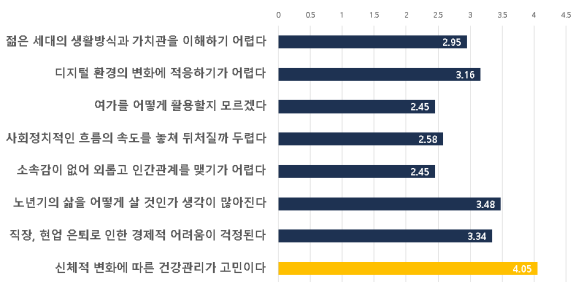
#### □ 삶에서의 고민

- 삶에서의 고민을 물어보았을 때,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고민'이다(4.05)를 가장 고민이라고 응답하였고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아진다(3.48)가 뒤를 이었음
- 기타 응답으로는 '가족관계', '자식걱정', '손자케어' 등과 같은 가족과 관련된 응답이 주었으며, '죽음', '웰다잉', '상속',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사회공헌' 등의 응답이 있었음

구분	평균(5점척도)
젊은 세대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기 어렵다	2.95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3.16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	2.45
사회정치적인 흐름의 속도를 놓쳐 뒤처질까 두렵다	2.58
소속감이 없어 외롭고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2.45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아진다	3.48
직장, 현업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	3.34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고민이다	4.05

〈표 15〉 삶에서의 고민



#### □ 성별에 따른 삶에서의 고민

- 성별에 따른 삶의 고민을 물어보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고민이라고 생각했으며, 특히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두 집단의 차이를 보여주는 항목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p-value=.022)', '소속감이 없어 외롭고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p-value=.044)',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아진다(p-value=.036)였음

구분 \ 성별	남성	여성
젊은 세대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기 어렵다	2.90	3.02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2.98	3.36*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	2.36	2.56
사회정치적인 흐름의 속도를 놓쳐 뒤처질까 두렵다	2.47	2.70
소속감이 없어 외롭고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2.31	2.63*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아진다	3.32	3.67*
직장, 현업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	3.25	3.45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고민이다	3.93	4.2

\*  $p < .05$

〈표 16〉 성별에 따른 삶에서의 고민

#### □ 연령별 삶에서의 고민

- 모든 연령대에서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고민이다' 항목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응답하였으며, 50대, 60대는 그 뒤로 '노년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아진다'가 뒤를 이었고, 70대와 80대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가 뒤를 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대별로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p-value=.001)',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p-value=.019)'였음. 가장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응답한 집단은 80대였으며,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은 70대였음

구분 \ 연령	50대	60대	70대	80대
젊은 세대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기 어렵다	2.72	2.98	3.31	3.12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2.85	3.12	3.78	4**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	2.10	2.54	2.78	2.75*
사회정서적인 흐름의 속도를 놓쳐 뒤처질까 두렵다	2.54	2.66	2.57	1.87
소속감이 없어 외롭고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2.27	2.52	2.63	2.37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아진다	3.40	3.46	3.63	3.75
직장, 현업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	3.23	3.37	3.31	3.75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고민이다	4.17	4	3.84	4.62

\*  $p < .05$ , \*\*  $p < .01$

〈표 17〉연령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 □ 학력별 삶에서의 고민

- 학력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력범주에서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고민이다' 항목을 가장 큰 고민임을 알 수 있었으며, 증폭이하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고졸과 대졸, 대학원졸의 경우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많아진다', 전문대졸의 경우 '직장, 현업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가 뒤를 이었음
- 통계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젊은 세대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기 어렵다( $p$ -value=.020)',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p$ -value=.000)',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 $p$ -value=.023)', '직장, 현업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 $p$ -value=.029)'였음. 모든 학력집단에서 신체적 변화를 걱정하였지만, 해당 항목에서 학력 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사회정서적인 흐름의 속도를 놓쳐 뒤처질까 두렵다	2.64	2.57
소속감이 없어 외롭고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2.75	2.40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아진다	3.75	3.43
직장, 현업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	3.46	3.32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고민이다	3.82	4.10

\*\*  $p < .01$

〈표 19〉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삶에서의 고민

#### □ 타겟그룹 별 삶에서의 고민

- 타겟그룹에 따라 삶에서의 고민을 살펴보았을 때, 62~63세 동질집단은 가장 고민이라고 응답한 항목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였으며, 다른 타겟그룹들의 경우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고민이다'를 가장 고민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타겟그룹 별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젊은 세대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기 어렵다( $p$ -value=.000)',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p$ -value=.000)',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아진다( $p$ -value=.000)', '직장, 현업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 $p$ -value=.002)',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고민이다( $p$ -value=.000)'이었음. 따라서 타겟그룹 별 삶에서의 고민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구분 \ 타겟그룹	62~63세 동질집단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원도심 내 산업화를 경험한 60대 남성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젊은 세대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기 어렵다	2.52	2.67	2.31	3.29***

구분 \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젊은 세대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기 어렵다	3.3	3	3.2	2.66	2.73*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3.78	3.21	2.8	2.71	2.94***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	2.82	2.43	2.4	2.19	2.36*
사회정서적인 흐름의 속도를 놓쳐 뒤처질까 두렵다	2.6	2.63	3	2.46	2.57
소속감이 없어 외롭고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2.52	2.56	2.4	2.35	2.42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아진다	3.68	3.72	3.4	3.26	3.15
직장, 현업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	3.5	3.54	3.7	3.23	2.73*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고민이다	4.3	3.91	3.7	4.03	3.94

\*  $p < .05$ , \*\*\*  $p < .001$

〈표 18〉학력별 삶에서의 고민

#### □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삶에서의 고민

- 1순위인 건강관리에 대한 고민을 제외하고 경제활동 유무에 상관없이 2순위로 꼽은 것은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아진다'였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과 아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 $p$ -value=.009)'였음

구분 \ 활동여부	경제활동O	경제활동X
젊은 세대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기 어렵다	3.25	2.90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3.42	3.11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	2.89	2.37**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3.38	2.92	3.48	3.57***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	2.19	2.32	2.62	2.64
사회정서적인 흐름의 속도를 놓쳐 뒤처질까 두렵다	2.09	2.71	2.5	2.66
소속감이 없어 외롭고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1.95	2.47	2.38	2.68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아진다	2.57	3.45	3.79	3.70***
직장, 현업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	2.57	3.38	3.62	3.46**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고민이다	2.95	4.13	4.21	4.30***

\*\*  $p < .01$ , \*\*\*  $p < .001$

〈표 20〉타겟그룹 별 삶에서의 고민

#### 4. 문화예술교육 참여경험과 필요성 및 목적

##### 1)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 □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62%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8%가 없다고 응답
- 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은 53%, 여성은 79%로 남성의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음

구분\성별	전체	남성	여성
네	107(62%)	44(53%)	63(79%)
아니오	66(38%)	49(47%)	17(21%)
합계	173(100%)	93(100%)	80(100%)

〈표 21〉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 □ 연령별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 연령대 별로 참여경험을 보았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구분\연령	전체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네	107(62%)	31(65.9%)	63(63.6%)	11(57.9%)	2(25%)
아니오	66(38%)	16(34.1%)	36(36.4%)	8(42.1%)	6(75%)
합계	173(100%)	47(100%)	99(100%)	19(100%)	8(100%)

〈표 22〉 연령별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 □ 학력별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 학력으로 나누어보았을 때 통계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학력구분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네	107(62%)	21(42%)	24(64.9%)	6(60%)	41(71.9%)	15(78.9%)
아니오	66(38%)	29(58%)	13(35.1%)	4(40%)	16(28.1%)	4(21.1%)
합계	173(100%)	50(100%)	37(100%)	10(100%)	57(100%)	19(100%)

〈표 23〉 학력별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 □ 소득별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 소득으로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을 나누어보았을 때, 50~100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에서 가장 참여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참여경험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음

소득구분	전체	50이하	50~100	100~200	200~300	300이상
네	107(62%)	11(73.3%)	10(41.7%)	21(58.3%)	23(71.9%)	42(63.6%)
아니오	66(38%)	4(26.7%)	14(58.3%)	15(41.7%)	9(28.1%)	24(36.4%)
합계	173(100%)	15(100%)	24(100%)	36(100%)	32(100%)	66(100%)

〈표 24〉 소득별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 □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 큰 차이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의 비율이 적었음

구분\활동여부	전체	경제활동O	경제활동X
네	107(62%)	15(53.6%)	92(63.5%)
아니오	66(38%)	13(46.4%)	53(36.5%)
합계	173(100%)	28(100%)	145(100%)

〈표 25〉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 □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여부

-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음

###### □ 타겟그룹 별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 타겟그룹에 따라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타겟그룹 간 차이는 통계상으로 유의미했으며(p-value=.000), 산업화를 경험한 60대 남성이 가장 참여경험이 없었으며(62%),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가장 참여경험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82%)

타겟그룹구분	62~63세 동질집단	베이비붐 세대	산업화를 경험한 60대 남성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네	9(43%)	55(82%)	11(38%)	32(57%)
아니오	12(57%)	12(18%)	18(62%)	24(43%)
합계	21(100%)	67(100%)	29(100%)	56(100%)***

\*\*\*  $p < .001$

〈표 26〉 타겟그룹 별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참여경험

#### 2)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물어보았을 때, 전체집단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93%였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7%였음
-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없던 남성의 경우 삶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2.4%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참여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구분\성별	전체	남성	여성
네	160(93%)	85(92.4%)	75(93.7%)
아니오	12(7%)	7(7.6%)	5(6.3%)
합계	173(100%)	92(100%)	80(100%)

〈표 27〉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 연령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연령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전 결과와 같이 해석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경험과 필요성 모두 못 느끼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음

구분\연령	전체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네	160(93%)	46(97.9%)	91(91.9%)	16(88.9%)	7(87.5%)
아니오	12(7%)	1(2.1%)	8(8.1%)	2(11.1%)	1(12.5%)
합계	173(100%)	47(100%)	99(100%)	18(100%)	8(100%)

〈표 28〉 연령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 학력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학력으로 나누었을 때, 전문대 졸업과 대학원 졸업이상의 집단은 응답한 구성원 모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참여경험이 가장 낮았던 중졸이하의 그룹에서는 85.7%가 나의 삶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학력 구분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네	160(93%)	42(85.7%)	33(89.2%)	10(100%)	56(98.3%)	19(100%)
아니오	12(7%)	7(14.3%)	4(10.8%)	0(0%)	1(1.7%)	0(0%)
합계	173(100%)	49(100%)	37(100%)	10(100%)	57(100%)	19(100%)

〈표 29〉 학력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 소득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100만원 이하)의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필요성을 낮게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이전의 결과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경험이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경험과 필요성을 낮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소득 구분	전체	50이하	50~100	100~200	200~300	300이상
네	160(93%)	13(86.7%)	18(78.3%)	34(94.4%)	31(96.9%)	64(96.9%)
아니오	12(7%)	2(13.3%)	5(21.7%)	2(5.6%)	1(3.1%)	2(3.1%)
합계	173(100%)	15(100%)	23(100%)	36(100%)	32(100%)	66(100%)

〈표 30〉 소득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참여경험에서와 같이 큰 차이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활동여부 구분	전체	경제활동O	경제활동X
네	160(93%)	25(92.6%)	135(93.1%)
아니오	12(7%)	2(7.4%)	10(6.9%)
합계	173(100%)	27(100%)	145(100%)

〈표 31〉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문화예술교육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 문화예술 또는 평생교육 경험에 따른 필요성

- 문화예술 또는 평생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 중 나의 삶에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84.6%이었음. 문화예술 또는 평생교육 경험이 없어도 대다수가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경험여부 구분	전체	경험O	경험X
네	160(93%)	105(98.1%)	55(84.6%)

아니오	12(7%)	1(1.9%)	10(15.4%)
합계	173(100%)	107(100%)	65(100%)

〈표 32〉 문화예술 또는 평생교육 경험에 따른 필요성

## 3)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어려움

### □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어려움

-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어려움을 다중응답으로 물어보았을 때, 그 빈도가 가장 높았던 이유는 '시간, 비용, 접근성 등 개인적인 이유(44.1%)'였으며, 그 뒤로 '취미활동에만 머물러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성찰에 도움이 안 됨(14.6%)', '같이 할 친구가 없거나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아서(13.6%)'의 이유가 뒤를 이었음
- 기타 응답으로는 '프로그램의 기간이 짧다(지속성의 문제)', '도서 지역에는 프로그램 제공이 별로 없다(지역적 특성)', '홍보가 부족해서', '혼자해도 충분해서', '바빠서', '무료수강의 기회가 없어서' 등이 있었음

구분	명(%)
같이 할 친구가 없거나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아서	29(13.6%)
프로그램의 내용이 쓸모가 없고 나의 필요에 맞지 않음	13(6.1%)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없음	32(15%)
취미활동에만 머물러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성찰에 도움이 안 됨	31(14.6%)
시간, 비용, 접근성 등 개인적인 이유	94(44.1%)
기타	14(6.6%)
합계	213(100%)

〈표 33〉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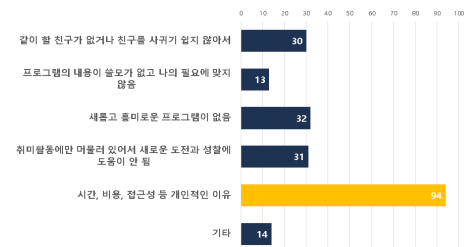
## 4)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

### □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

-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싶다',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보람된 활동을 하고 싶다', '흥미로운 취미와 여가활동과 함께 교양을 쌓고 싶다'는 응답 순으로 평균이 높았음

### □ 참여경험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

- 참여경험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문화예술 또는 평생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높았음
- 특히 9개 항목 중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인생을 고양시키고 싶다(p-value=.000)', '음악, 미술, 연극 등을 배워 예술가가 되어보고 싶다(p-value=.002)',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싶다(p-value=.001)', '직업(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술을 배우고 싶다(p-value=.008)', '흥미로운 취미와 여가활동과 함께 교양을 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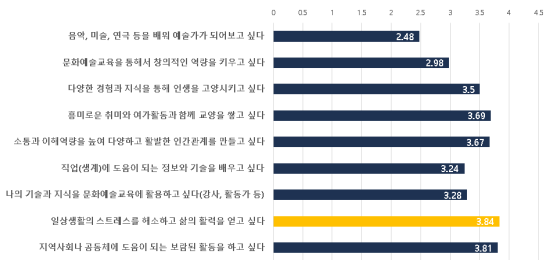




고 싶다(p-value=.017)', '나의 기술과 지식을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하고 싶다(p-value=.045)'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이를 통해 문화예술 또는 평생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 참여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구분	평균 (5점척도)
음악, 미술, 연극 등을 배워 예술가가 되어보고 싶다	2.48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싶다	2.98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인생을 고양시키고 싶다	3.5
흥미로운 취미와 여가활동과 함께 교양을 쌓고 싶다	3.69
소통과 이해역량을 높여 다양하고 활발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	3.67
직업(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술을 배우고 싶다	3.24
나의 기술과 지식을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하고 싶다(강사, 활동가 등)	3.28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싶다	<b>3.84</b>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보람된 활동을 하고 싶다	3.81

〈표 34〉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



□ 타겟그룹 별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

- 타겟그룹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살펴본 것을 때, 62~63세 동질집단의 경우 살아오면서 축적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원했고, 베이비붐 세대와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산업화를 경험한 60대 남성의 경우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보람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였음

구분 \ 경험여부	경험O	경험X
음악, 미술, 연극 등을 배워 예술가가 되어보고 싶다	2.69	2.15**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싶다	3.2	2.63**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인생을 고양시키고 싶다	3.73	3.13***
흥미로운 취미와 여가활동과 함께 교양을 쌓고 싶다	3.82	3.49*
소통과 이해역량을 높여 다양하고 활발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	3.72	3.6
직업(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술을 배우고 싶다	3.4	2.98**
나의 기술과 지식을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하고 싶다(강사, 활동가 등)	3.41	3.06*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싶다	<b>3.93</b>	<b>3.69</b>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보람된 활동을 하고 싶다	3.9	3.66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5〉 참여경험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

- 타겟그룹 간 차이는 통계상으로 유의미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싶다(p-value=.036)',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인생을 고양시키고 싶다(p-value=.000)', '흥미로운 취미와 여가활동과 함께 교양을 쌓고 싶다(p-value=.007)', '소통과 이해역량을 높여 다양하고 활발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p-value=.007)', '흥미로

운 취미와 여가활동과 함께 교양을 쌓고 싶다(p-value=.004)', '직업(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술을 배우고 싶다(p-value=.002)', '나의 지식과 기술을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하고 싶다(p-value=.002)',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싶다(p-value=.002)',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보람된 활동을 하고 싶다(p-value=.002)'임

구분 \ 타겟그룹	62~63세 동질집단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원도심 내 산업화를 경험한 60대 남성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음악, 미술, 연극 등을 배워 예술가가 되어보고 싶다	2.33	2.53	2.41	2.53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싶다	2.48	3.14	3.28	2.84*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인생을 고양시키고 싶다	2.86	3.67	3.79	3.41***
흥미로운 취미와 여가활동과 함께 교양을 쌓고 싶다	3.24	3.88	3.83	3.59**
소통과 이해역량을 높여 다양하고 활발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	3.14	3.77	3.93	3.64**
직업(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술을 배우고 싶다	2.71	3.47	2.86	3.38**
나의 기술과 지식을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하고 싶다(강사, 활동가 등)	3.47	3.62	3.18	3.18**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싶다	2.95	<b>3.94</b>	4.24	<b>3.86***</b>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보람된 활동을 하고 싶다	3.14	3.81	<b>4.34</b>	<b>3.76***</b>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6〉 타겟그룹 별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

#### IV. 노년 문화예술교육 학습과제 제안을 위한

##### 타겟그룹 별 심층면담

#### 1.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 기획연구자 : 김은영 (공연예술연구소 POISE 대표)

제목	내용	비고
조사대상	인천시에 연고를 둔 대학 학력 이상 베이비붐 세대	
인터뷰	13명	설문참여자 중
설문조사	67명	연구기본설문
주요질문	현재 개인적 상황 및 특성 현재 삶의 고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참여의 어려움 희망하는 교육내용	
핵심과제, 키워드	* 핵심과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심신의 건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웰 다잉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키워드: 베이비 붐 세대, 노년문화예술교육,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표 37〉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심층면담 요약

#### 1)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 □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인천시에 연고를 둔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요구를 분석함
- 이를 기반으로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요구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노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 □ 조사방법

-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참여 욕구 및 요구를 조사함
- 총 67명의 설문조사와 개인 인터뷰 실시
- 주요 설문내용은 현재 개인적 상황, 사회인구학적 특성,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필요성 인식,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등 4개의 주요항목으로 구성
- 주요 인터뷰내용은 현재 삶의 고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기존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어려움, 희망하는 교육내용 등의 질문으로 구성

#### 2) 베이비붐 세대의 개념 및 특성

##### □ 베이비붐 세대의 개념

- 1955년 ~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함
- 한국전쟁 종전 후 ~ 정부 산아제한정책 도입 직전
- 현재 나이: 58세~66세가 해당
- 학번: 74학번~82학번이 해당

- 2015년 이후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하면서 노년기에 진입된 상태
- 전체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

##### □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 정치적, 경제적 측면
  - 한국사회에서의 베이비부머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의 주역
  - 한국전쟁으로 인한 냉전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경험한 세대
  - 군사독재, 유신정치로 인한 민주화 투쟁에 참여한 세대
  - 보수와 진보가 혼재된 정치적 이념을 가진 세대
  - 농업사회에서 수출중심의 산업사회로, 지식정보화의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시킨 경제성장의 주역
- 심리적 측면
  - 산업화의 성공으로 이전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경험했지만,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과 사회를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경험한 세대
  - 책임과 의무를 다하느라 노후준비 미흡한 세대
  - 부모부양과 자녀지원 등 이중의 부담감을 지닌 세대
  - 자신들의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으려는 세대
  - 은퇴 이후에도 생계형 일자리를 희망하는 세대

#### 3) 설문지 및 인터뷰 주요 조사결과

##### □ 질문1: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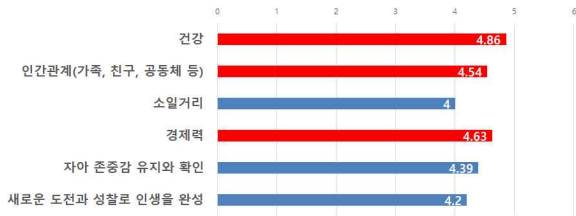
[그림 7]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 현재의 고민

- 1위: 신체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 2위: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 3위: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인터뷰 사례
  - “제 나이 62세 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저는 굉장히 치명적이예요. 5가지 기저질환을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마다 솔직히 겁이 나요. 젊은 학생들이야 무증상자도 많지만 저처럼 5가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60대 선생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만약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도 이제 3년 후면 퇴직인데 건강도 경제력도 걱정이 큼니다.” (63세 남성, 교육직 종사자)
  - “건강, 경제력,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기, 혼자 사는 외로움, 노년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요. 저는 혹시 몰라서 현관문 빗장을 채우지 않고 자요.” (65세 여성, 주부)
  - “아직은 일을 해야 하는 나이이고, 은퇴한다 하더라도 저는 경제활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 없이 자식들과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일을 계속해야 해요. 당연히 저도 편하게 쉬고 싶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못해요.” (58세 여성, 영업직 종사자)

- 실제 인터뷰 사례에서도 건강관리와 경제력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도움 받기를 원함
-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부모부와 자녀지원으로 인한 노년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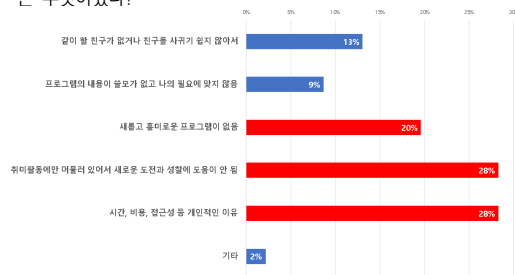
□ 질문2: 노년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무엇인가?



[그림 8]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 삶에서 중요한 점

- 1위: 건강
- 2위: 경제력
- 3위: 인간관계
- 인터뷰 사례
  - “나는 문화예술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 달려온 팀원들과 삶의 즐거움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각자의 개성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나 역시 그 과정이 찾아왔고 힘들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과 5년 이상을 함께 활동해 오다보니 지금은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도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팀원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팀원들로 인해 내 성격도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61세 여성, 교육직 종사자)

□ 질문3: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그림 9]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 참여의 어려움

- 1위: 새로운 도전과 성찰에 도움이 안 됨
- 1위: 시간, 비용, 접근성 등 개인적 이유
- 2위: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없음
- 인터뷰 사례
  - “9년 정도 문화예술교육이나 평생교육을 수강해왔지만 매번 비슷한 프로그램과 내용이라 식상하고 재미없었습니다. 새롭고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63세 남성, 자원봉사자)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과정에서 팀별 활동이 있잖아요. 근데 팀원들 간의 교육 정도나 가치관에 따라서 팀원들의 참여도나 완성도, 분위기가 크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럴 때 꼭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요. 나도 배우러 왔는데 나만 뭔가 하고 다른 사람들은 팀별 작업 때 수업에 필요 없는 수다나 떠니까... 그런 게 힘들었어요.” (58세 여성, 교육직 종사자)
  -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문화예술교육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권위적인 존재 아저씨들은 교육받으러 와서도 여자들한테 대접받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 게 어렵죠.” (59세 여성,

로그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각자의 개성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나 역시 그 과정이 찾아왔고 힘들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과 5년 이상을 함께 활동해 오다보니 지금은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도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팀원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팀원들로 인해 내 성격도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61세 여성, 교육직 종사자)

- “어느 날 대학교 동창 하나가 젊은 나이에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 차 찾아 갔지요. 완전히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늙어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부잣집 외동딸이었거든요. 근데 자식들도 친구들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그 친구 보면서 나를 돌이켜보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아파서 누워있다면 날 찾아오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 저는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없는데... 그래도 외롭고 고독한 노년은 보내지 말자! 그때부터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찾아다니면서 문화예술교육도 접하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63세 여성, 자원봉사자)
- 1위 건강과, 2위 경제력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현재 삶의 고민’에 대한 답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음
- 3위의 경우, 베이비부머들은 노년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했다고 답함
- 연구참여자들은 긍정적 인간관계가 노년기의 고독감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교육직 종사자)

- ‘취미활동에만 머물러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성찰에 도움이 안 됨’과 ‘시간, 비용, 접근성 등 개인적 이유’가 공동 1위를 차지함
- ‘취미활동에만 머물러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성찰에 도움이 안 됨’이라고 응답한 경우, 베이비부머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자기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됨
- ‘시간, 비용, 접근성 등 개인적 이유’라고 응답한 경우, 현재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응답이 많았으며, 이들은 직장생활로 인해 시간과 접근성 등 참여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2위를 차지하였는데, 위의 인터뷰 사례와 같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비슷한 프로그램과 내용이 식상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음
- 또한,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때문에 참여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음

□ 질문4: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림 10]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 참여의 목적

- 1위: 스트레스 해소, 삶의 활력회복
- 2위: 흥미로운 여가활동을 통한 교양 쌓기
- 3위: 활발한 인간관계, 공동체를 위한 보람된 활동

#### ○ 인터뷰 사례

- “문화예술교육은 나에게 스트레스도 해소 시켜주지만 몸과 마음이 다시 젊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연극하면서 젊은 아들 역할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머리로 염색하고 옷도 젊은 사람들처럼 입고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저보고 회춘했다고 하더라고요.” (66세 남성, 자원봉사자)
- “열심히 살아 온 당신, 떠나라! 예전에 유행했던 광고문구예요. 문화예술교육은 그 동안 열심히 살아 온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지요.” (61세 여성, 교육직 종사자)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식과 교양도 쌓을 수 있어서 좋고, 저는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무엇보다 할 일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아는 사람 중 하나는 하루 일과가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점 백 고스톱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리, 무릎, 목 아프다고 병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자기의 노년을 저렇게 무의미하게 보낼까... 안타깝고 그래요.” (65세 여성, 주부)

#### ○ 실제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 위의 인터뷰 사례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은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이 젊어지는 경험을 제공하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며, 지식과 교양을 쌓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직 종사자)

- “연택 시대, 예배를 컴퓨터로 하는데 나는 들어가는 방법도 몰라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 (63세 여성, 종교인)

#### ※ TIP! 프로그램의 예

핸드폰으로 영상 만들기, 유튜브 제작방법, 유튜브 되기 등등

#### □ 심신의 건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

-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었음
-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었음
- 치매예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치매예방과 뇌건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었음
- “우리 나이에겐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요. 젊었을 때는 별의별 일에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 나이 정도 되면 웬만한 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연극이나 영화를 봐도 우울하고 슬픈 거는 피하고 즐겁고 신나는 거 보러 다녀요.” (65세 남성, 자원봉사자)
-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래가 치매 예방에 좋단니까, 흔한 노래교실 같은 거 말고, 노래를 활용한 프로그램 같은 거” (66세 여성, 주부)

#### ※ TIP! 프로그램의 예

‘동요 합창단’: 어린 시절 추억의 동요 + 악기연주 + 율동

## 4) 희망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

- 베이비붐 세대들은 장르중심, 기량중심, 취미활동 위주의 기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새로운 융복합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었음
- 생활환경, 교육정도, 직업특성, 개인성향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융복합 프로그램을 희망함
- “평생교육과정에 여행 동아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인기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여행을 다녀오고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과 미술, 또는 사진 프로그램과 융합해서 여행 경험을 미술이나 사진으로 담아내고 결과적으로 전시회까지 발전하면 좋을 거 같아요.” (58세 여성, 교육직 종사자)

#### ※ TIP! 프로그램의 예

‘여행 + 사진, 미술’, ‘역사 + 연극, 미술’, ‘문학 + 연극, 사진’, ‘영화 + 자서전 쓰기’, ‘음악 + 무용’

### □ 디지털 관련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시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 요구
- 단순히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방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과 예술 교육의 만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었음
- “지금 우리 세대는 디지털 문맹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9세 여성, 영업직 종사자)
- “나도 내가 직접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보고 싶다.” (60세 남성, 교육

### □ 웰다잉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

- 노년과 죽음에 ‘삶의 끝’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서의 웰다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문화예술교육이 노년과 죽음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일본에서는 사후에 처리해야 할 목록을 미리 적어놓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은행 잔고는 얼마인지, 비밀번호는 몇 번인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등... 유품이나 살고 있는 집 처리 방법, 부고를 알릴 사람 명단과 연락처를 남겨서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둘 필요도 있겠지요.” (63세 여성, 종교인)

#### ※ TIP! 프로그램의 예

영화관람 후 질문 만들기 및 토론 + 버킷 리스트 만들기 + 실천하기

## 2.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기획연구자 :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

제목	내용	비고
조사대상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이상의 남성	
인터뷰	8명	설문참여자 중
설문조사	30명	연구기본설문
주요질문	- 개인의 기본 인적사항 - 개인 상황 및 특성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입장	
핵심과제, 키워드	시대성, 사회성, 개방성	

〈표 38〉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심층면담 요약

## 1) 설문 분석(설문인원: 30명)

□ 연령별

15. 귀하의 해당 만 나이를 표시해 주십시오.	빈도
40~49세	1
50~59세	4
60~69세	12
70~79세	7
80~89세	6
90세 이상	0
합계	30

〈표 39〉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연령

□ 직업별

17. 귀하의 이전(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빈도
회사원	3
전문직	6
생산직	2
교육/공무원	2
자영업	14
주부	0
무직	1
기타	2
합계	30

〈표 40〉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직업

- 73 -

- 74 -

□ 학력별

18. 귀하의 최종학력에 표시해 주십시오.	빈도
중졸 이하	12
고졸	12
전문대졸	3
대졸	3
대학원 졸업 이상	0
합계	30

〈표 41〉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학력

□ 소득별

19. 귀하의 가구 월평균 소득 혹은 연금 등 가용 예산을 표시 해주세요.	빈도
월 50만원 이하	2
월 50~100만원	5
월 100~200만원	12
월 200~300만원	5
월 300만원 이상	6
합계	30

〈표 42〉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소득

□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4. 귀하가 노년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무엇입니까?	5점 만점	응답자수
건강	4.16	30
인간관계(가족, 친구, 공동체 등)	4.34	29
소일거리	4.30	30
경제력	4.20	30
자아 존중감 유지와 확인	3.60	30
새로운 도전과 성찰로 인생을 완성	3.6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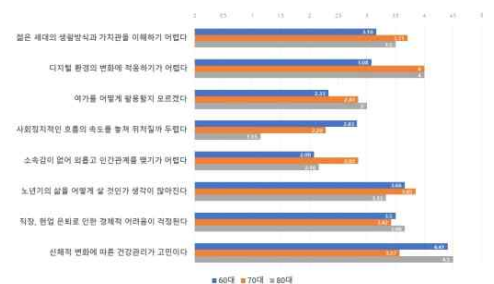
〈표 43〉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삶에서 중요한 점

□ 참여의 어려움

10. 프로그램을 접하거나 참여하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중복응답)	빈도
같이 할 친구가 없거나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아서	5
프로그램의 내용이 쓸모가 없고 나의 필요에 맞지 않음	1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없음	5
취미활동에만 머물러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성찰에 도움이 안 됨	3
시간, 비용, 접근성 등 개인적인 이유	21
기타	2
합계	37

〈표 44〉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참여의 어려움

- 전체 설문 대상자 173명의 통계와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했음
- 이에 12. 현재 귀하의 삶에서 해결해야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13. 귀하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의 각 항목에서 동일 집단 내 연령대에 따라 응답 수가 어떻게 달리 드러나는 지를 확인했음



[그림 11]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연령별 고민거리

- 75 -

- 76 -

- 전반적으로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고민이다가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이는 가운데, 80대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음
-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가 70, 80대에(상대적으로 60대는 적게),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60,70대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현업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가 그 뒤를 이었음
- 80대에서 사회경제적인 흐름의 속도를 놓쳐 뒤처질까 두렵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도 주목할 만함



[그림 12]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남성 - 연령별 참여목적

-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보람된 활동을 하고 싶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싶다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특히 80대에서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싶다'응답이 가장 많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임
- 소통과 이해 역량을 높여 다양하고 활발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또한 80대가 높게 나타났음
-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인생을 고양시키고 싶다는 60대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역으로 음악, 미술, 연극 등을 배워 (전문) 예술가가 되어보고 싶다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직업(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도 마찬가지임
- ※ 이러한 결과 또한 설문참여자 30명의 차별화된 범주로 나타난 것이기보다는 연령과 세대에 따른 삶의 환경 변화와 경험, 의욕의 차이로 보임

## 2) 인터뷰 정리(인터뷰 인원: 8명)

- 설문 참가자 30명 중에서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개인별 특성과 현상을 파악하여 유형화하였음

### □ A씨 사례

#### ○ 인적사항

- 나이: 60대 중반
- 현재: 자영업 \*가족들과 음식점 운영
-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20년 동안 동구 소재 섬유공장 생산직 총괄책임자로 일함
- 노조 활동 경력

#### ○ 개인 상황 및 특성

- 자본에 매몰된 회사 또는 기업의 비합리적·비윤리적 경영 논리와 부조리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 소유
-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동자 편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그들의 활동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
- 현장에서 터득한 남다른 기술 공유 등 더불어 살에 대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실천
- 자신의 시대, 세대가 지닌 인식의 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그 한계

도 인정

-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반듯한 사고와 태도의 소유자로 삶을 이어 옴
- 이러한 사고 및 생활 태도는 주로 부모님으로부터 영향
- 노모와 자식, 손주까지 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소유 및 (경제적) 책무 성실히 이행
- 그럼에도 자식들 신세지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생각
- 이러한 성실하고 부지런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별다른 여가 생활이나 문화 체험은 드물고, 이따금 낚시 즐겨
- 원만한 인간관계로 주위로부터 신망이 두터움

####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입장

-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문화 체험이나 문화예술 관련 교육에의 관심은 지대하나 현실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음

### □ B씨 사례

#### ○ 인적사항

- 나이: 80대 초반
- 현재: 무직
- 경기도 출생 및 거주
-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말까지 20년 가까운 군(하사관) 생활
- 전역 후 40대 초반 인천으로 이주
- 이후 모 기업의 생활용품 판매처에서 근무

#### ○ 개인 상황 및 특성

- 60대 은퇴 후 소득 전무, 부인에게 의존 \*특별한 일 없이 소일
- 오랜 군생활 경험으로 현재에도 절제 및 시간 관리 등 절도 있는 생활 몸에 배어 있으나 그로 인해 또 다른 융통성 부족 상황 초래

- 대인관계나 소속감 부재, 사회와도 단절, 자존감 상실 \*말벗이나 친구도 없고 인생의 낙이 없음
- 정부의 정책이 나 자신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기대 없음

####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입장

- 어려운 시기 경제생활에 몰입, 개인만의 역량을 발휘할 전문적 능력 습득이나 문화 체험 또는 문화적 혜택 전무
- 중졸 학력으로 공부에의 열망 여전하고, 문화 체험 필요성 절실. 그렇지만 고령의 나이에 몸이 마음을 못 따라감 \*그래도 동년배에 비하면 매우 건강한 편임
- 삶에 대한 의욕 여전하고 취미와 여가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마땅한 기회 못 찾음

### □ C씨 사례

#### ○ 인적사항

- 나이: 70대 중반
- 현재: 자영업 \*50년 동안 주거생활 설비 제작 및 판매가게 운영
- 자녀들 고등 교육 및 전문직 취업, 독립 가정 꾸림 \*가장으로서의 책무 다함

#### ○ 개인 상황 및 특성

- 지역 유지로서의 폭 넓은 인간관계 및 위상 유지
- 도시 현안 및 마을 상황에 대한 지대한 관심 및 주도적 역할 담당
- 국가관 뚜렷하고, 정부의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소유 \*근대 산업 및 성장, 발전의 논리 내면화
- 시대의 변화된 (생태적) 패러다임에는 무관심, 자신의 주관적 경험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
- 그렇다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직접 나서서 갈등 및 반목하고 싶지는 않고(나름의 인품을 보여주고자 함), 또 다른 개인적 관계망

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함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입장

-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미술 작품 구입도 하는 등 관심 높으나 직접 배우고 싶은 욕구는 없음 \*현재 생활에 만족

□ D씨 사례

○ 인적사항

- 나이: 60대 초중반
- 현재: 자영업과 문화예술활동

○ 개인 상황 및 특성

- 오랜 기간 산업 기계 제작 관련 업종(생산직)에 종사, 전문 경험과 역량 소유
- 가족의 생계 및 자녀 교육 책무 이행
- 시대를 깨인 눈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비판적 능력 소유
- 나름의 전문성과 탈 권위, 특유의 친화력으로 여러 조직체 속에서 리더십 발휘 \*현재 마을의 주요 직책도 맡아 활발한 활동
- 추진력 또한 강함. 다만 주도면밀함은 다소 약함
- 감성적이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는 경향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입장

- 문화예술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과 관심으로 틈틈이 그림 사사 및 창작 활동 지속
- 동서고금에 걸친 관련 분야 공부를 독학으로 지속하며 여유 자금을 고미술품과 골동품 수집에 할애, 상당한 수준과 분량의 컬렉션 확보
- 자녀들 또한 문화 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 \*문화예술가족
- 문화예술교육 대상자보다는 교육 역량 소유자

- 81 -

○ 개인 상황 및 특성

- 생활 안정과 더불어 여가 생활에 관심이 높음. 현재 짬나는 대로 주말 운동(골프) 등
- 지역 내 여러 주민단체 참여 및 활발한 활동
- 관(官)이 행하는 것이라면 전적인 신뢰를 갖는 태도를 보이며 비슷한 부류와는 활발한 인간관계 유지
- 그러나 자수성가 경험에 따라 자신의 사고에 대한 확신이 매우 높아 강한 자기주장으로 또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이따금씩 갈등 발생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입장

- '인생은 즐기자'는 주의로 새로운 경험이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태도 미약

□ G씨 사례

○ 인적사항

- 나이: 70대 중반
- 현재: 자영업 50년. 현재는 은퇴
- 오랜 기간 도매업 운영하며 적지 않은 소득과 자산 소유
- 현재는 임대 소득으로 생활 유지

○ 개인 상황 및 특성

-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다함
-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여가나 취미에 대한 관심 지대
- 사회적인 문제나 마을 일에는 무관심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입장

- 학생시절부터 미술 쪽에 관심이 있었으나 경제생활을 우선하여 전공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감상자로 지내음

□ E씨 사례

○ 인적사항

- 나이: 60대 초반
- 현재: 무직

○ 개인 상황 및 특성

- 가정 문제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교육 미 이수
-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인 적응에 애로점 소유
- 인간 관계 형성 부재하나 자기 존재감 확인 욕구가 매우 강해 이따금 돌출적 행동 발생
-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사 일부 해결하고, 지역의 도서관, 문화공간, 종교 시설 전전
- 그럼에도 공공적인 관점에서의 사고와 판단 매우 높음
- 정부의 인터넷 민원 창구 활발한 활용, 다수의 개선 사례 실적
- 그러나 일부 자기중심적 사고와 오인 및 지나친 집착과 과잉 대응이 다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입장

- 문화예술 체험과 전문적 기술 습득, 사회적 소통 욕구가 매우 강함

□ F씨 사례

○ 인적사항

- 나이: 60대 중반
- 현재: 자영업
- 오랜 기간 학교 학생용품 판매 및 제작 공급
- 1980~2010년 많은 수의로 고소득. 이후 내리막길, 그러나 여전히 일정 수준의 소득 유지

- 82 -

- 그러던 중 노후에 접어들며 가게를 접고 창작 공간을 마련, 문화센터 등을 통해 그림을 배우고 그리면서 활력을 유지
- 취미로 그리지만 전문가 수준으로의 실력 향상 욕구가 높고 문화공간 운영에도 관심이 있음
- 그러나 제도화된 미술 양식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의 확장은 생각하지 않음

□ H씨 사례

○ 인적사항

- 나이: 60대 중후반
- 현재: 자영업
- 전문대에서 기계 정비 기술을 습득, 오랜 시간 수리센터 운영
- 개인 상황 및 특성
- 성실한 태도와 원만한 인품의 소유자로 화목한 가정 유지
- 주변에서의 신망도 높고 안정적인 경제 수준 유지
- 지역의 여러 주민단체 모임과 활동에도 참여, 리더십 발휘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입장

- 평상시 독서나 유튜브 시청을 통해 개인 사고와 경험 확장
- 문화예술 관련 직접적인 창작활동보다는 향유자로서 관심 높음

- 83 -

- 84 -

### 3.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기획연구자 : 박유미 (공간섬알 대표), 보조연구자: 경은희(위커스 기자)

제목	내용	비고
조사대상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남성 2명 포함
인터뷰	10명	설문참여자 중
설문조사	57명	연구기본설문
주요질문	<p>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의식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느끼는 개인적 일상적 변화</li> <li>- 창작 모임이 오래된 작은 공동체의 대인관계에 미친 영향</li> <li>-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특수성 및 개선점</li> </ul>	
핵심과제, 키워드	<p>*핵심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일상 재건</li> <li>-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활동 모색</li> <li>- 생태적 패러다임 재구축</li> <li>- 사회활동의 주체로서의 인식 전환</li> </ul> <p>*키워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존중, 타인 존중, 도서 지역, 노년 여성, 개인과 공동체</li> </ul>	

〈표 45〉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심층면담 요약

있으며, 노동 외에 사회적 지위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이 별로 없다는 점도 유추할 수 있음

- 4항 "귀하가 노년(현재)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무엇입니까?"에 응답자들은 '건강, 경제력, 인간관계, 자아 존중감 유지와 확인, 소일거리, 새로운 도전과 성찰로 인생을 완성' 순으로 답함. 응답자의 다수가 노년층인 만큼 자연스럽게 건강 항목이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음. 그러나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제력'(4.29)만큼 '인간관계'(4.21)나 '자아 존중감 유지와 확인'(4.14)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5항 "귀하의 현재 삶에 관한 태도와 생각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입니까?"의 답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사람들과의 의견교환'(30%)이라고 답함. 이는 '성장기의 교육과 경험'(17%)이나 '신문, 방송과 같은 대중 미디어'(1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이며 다른 응답자군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도서 지역에서 커뮤니티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6항 "귀하는 살면서 축적한 자신만의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답변에 58%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함. 이는 전체 응답자군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전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관련 기회가 부족해서(25%)'라고 대답함
- 7항 "귀하는 경제활동과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여가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며 보내십니까?"에 대한 대답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53%)가 '취미여가생활(음악, 독서, 그림, TV 시청 등)'라고 답함
- 8항 "경제활동시간과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에 대한 대답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82%)

### 1)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민 대상 설문 분석

#### □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설문 응답자: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민 57명(주문도 20명, 불음도 20명, 아차도 17명으로 서도면 총 인구 382명(2019년 기준)의 약 15% 응답)
- 나이: 응답자의 65%가 60세 이상의 노년층임
- 은퇴 여부: 대다수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로 91%가 현역으로 활동
- 성비: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음
- 최종 학력: 중졸 이하가 57%, 고졸이 24%로 저학력층이 다수임
- 소득: 월 소득 100만원 이하 47%의 저소득층이 많았음

#### □ 설문 결과

- 1항 "귀하는 현재 소득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91%의 응답자가 은퇴하지 않았다고 답해 도서 지역 노년은 꾸준히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2항 "예전에 비해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면, 늘어난 가용시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평소 해보고 싶던 취미, 여가, 학습시간 활용'이라고 답해(35%)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3항 "예전에 비해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면, 늘어난 가용시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28%)는 '사회적 지위, 존재감 약화로 인한 자신감 감소'라고 답함. 이는 사회적 지위, 존재감에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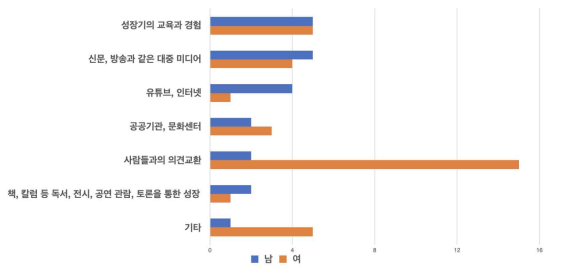
가 '집'이라고 답함.

- 9항 "귀하는 문화예술교육이나 평생교육 등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59%가 '네'라고 답해 과반수가 경험했다고 답함
- 10항 "프로그램을 접하거나 참여하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60%)가 '시간, 비용, 접근성 등 개인적인 이유'라고 답했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군 중 2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도서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11항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귀하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가 '네'라고 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2항 "현재 귀하의 삶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대답은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와 고민이다'로 노년층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건강 문제임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아진다'도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음
- 13항 "귀하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싶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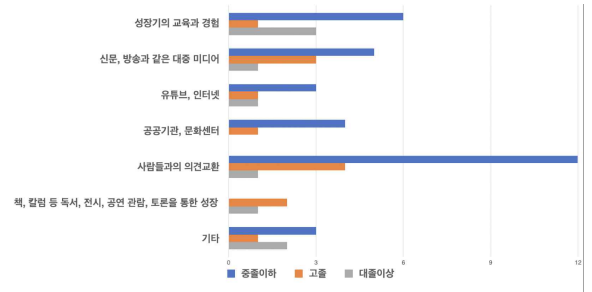
□ 설문 분석 결과

- 주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성, 학력,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로 일부 상이한 결과를 보임
- 5항 귀하는 현재 삶에 관한 태도와 생각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입니까?(성, 학력, 소득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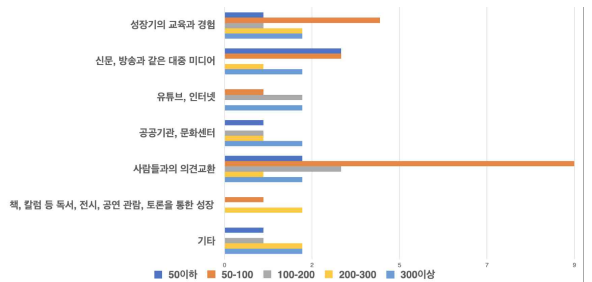
[그림 13]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성별에 따른 삶의 영향을 준 매개체

- 여성의 경우 '사람들과의 의견교환'이라고 더 많이 응답함. 전체 남성 응답자 21명 중 2명만이 해당 답변을 선택,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전체 36명 중 15명이 해당 답변을 선택함(10% vs 42%)



[그림 14]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학력별 삶의 영향을 준 매개체

-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는 아니지만,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의 응답자가 대졸 이상 응답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사람들과의 의견교환'이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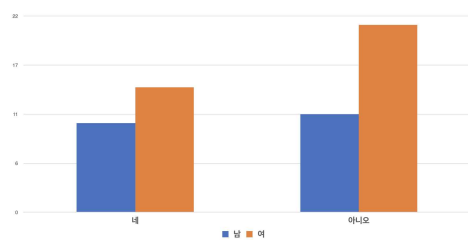


[그림 15]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소득별 삶의 영향을 준 매개체

- 소득별 응답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지만, 저소득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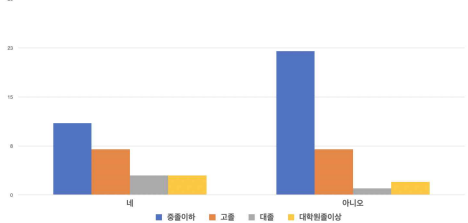
자가 '사람들과의 의견교환'이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함

- 6항 귀하는 살면서 축적한 자신만의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충분한다고 생각하십니까?(성, 학력, 소득에 따른 차이)



[그림 16]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성별에 따른 능력발휘 기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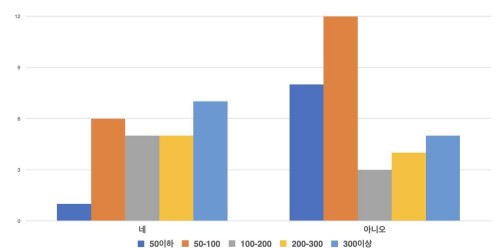
- 남녀 각각 52%, 60%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조금 더 높음



[그림 17]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학력에 따른 능력발휘 기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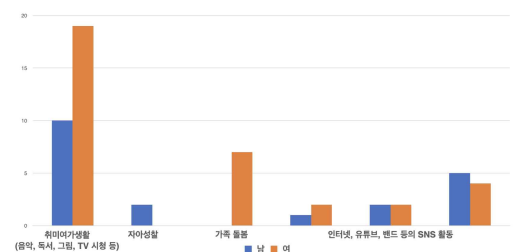
-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 고졸 응답자가 각각 67%, 50%로 학력이 낮을수록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함

- 소득에 따라서는 월 50만원, 월 50-100만원이 각각 89%, 67%로 소득이 낮을수록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함



[그림 18]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소득별 능력발휘 기회 여부

- 7항 귀하는 경제활동과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여가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며 보내십니까?(성별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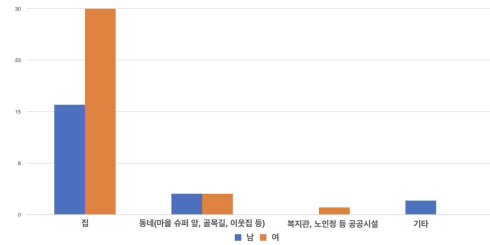
[그림 19]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 방법

- 해당 문항에 '가족 돌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모두 여성(남녀 0% vs

21%)이었으며, 이는 2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선택해 여성들에게 가사 노동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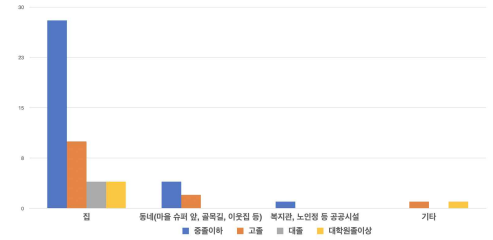
- 또한, 해당 문항에 취미 생활에는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선택했으나, '자아 성찰'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모드는 남성으로 나타나 그만큼 여성들이 자아 성찰을 위해 할애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8항 경제활동 시간과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성, 학력, 소득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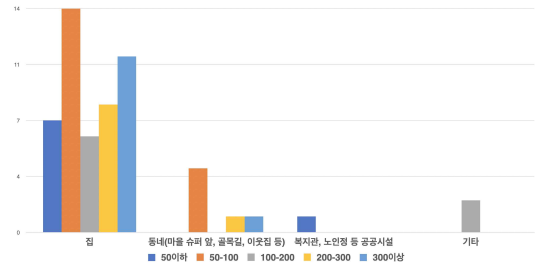
[그림 20]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 장소

- 해당 문항에 '집'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각각 76%, 88%의 비율이 답해 여성의 경우 더 많이 집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학력별 여가시간 활용 장소

-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고졸이 각각 85%, 77%의 비율이 답해 학력이 낮은 응답자가 소폭 집에 더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에 따라서는 월 50이하, 월 50-100만원의 소득을 가진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88%, 78%의 비율이 답해 소득이 낮을수록 집에 더 머무는다고 답함



[그림 22]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소득별 여가시간 활용 장소

## □ 설문조사 시사점

- 도서 지역 노년 응답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욕구가 크며, 건강과 경제력을 가장 중시하지만 이와 유사하게 인간관계나 자아 존중감 유지와 확인도 중요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참여에 많은 제약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성, 학력, 경제력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일수록 커뮤니티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람들과의 의견교환'을 중시하는 한편,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고 여겨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커뮤니티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함
- 여성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더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여성에게 가사노동의 부담이 편향돼 있고, 자아성찰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2) 아차도 문화예술교육 활동

### □ 아차도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흐름

- <공간섬알> 설립 이래로 아차도 주민과 작가와의 다양한 예술협업이 이어지고 있음. 문화예술활동의 주체적 참여자인 아차도 주민의 인터뷰를 반영하여 도서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기간	사업명	내용	기획·운영
2014	시민문화거점 프로젝트 <섬알>	- 무인카페이자 복합예술공간인 <공간섬알> 설립	아차도 주민
2015	<아차빛>	- 주민 주체형 첫 창작 모임 사진 워크숍 - 공간섬알 개관전 <살면서, 느끼면서 나도 스타!> 개최	박유미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생활장인의 섬 디자인>	- 참여자의 그림으로 디자인한 아차도 특산물(고구마, 새우젓, 굴) 패키지 제작 - 특산물 패키지, 참여자 그림으로 <별 볼 일> 전시 개최	박유미, 홍유경
2020	인천지역문화 예술교육 기획지원 <아차아트플랫폼>	- 참여자 개인의 인생과 삶의 터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으로 아차도 아트 상품 일바지, 배낭 제작 - 작가이자 모델인 아차도 주민의 <내 바지는 내가 그린다> 패션쇼·전시 개최 - 후원금이 주민의 아티스트 피로 사용되는 <내 바지는 내가 그린다>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성공	박유미, 홍유경
	동네방네 아지트 지원사업 <우리가 만나는 기억 같은 일들>	- 마을 안에 작은 극장을 만들어 주민의 잊지 못할 추억을 담은 국내외 영화 상영 - 태극기 마을인 아차도에서 평화의 의미를 고찰하는 <Imagine: 하늘은 하늘 대로, 바다는 바다 대로> 기획전 개최	

<표 46>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도서 지역 노년 여성  
- 아차도 문화예술교육 활동 진행경과

### 3) 아차도 주민 심층 인터뷰

- 인터뷰이 총 10명 (여성 8명: 60대~80대, 남성 2명: 50대, 60대)
- 내용: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 형식: 총 7개의 동일 질문 후 참여자 별 질문 및 답변 축약

#### □ 강○○ (50대, 남, 종교인)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그림을 정말 잘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됨. 연습과 훈련이 필요함
  - 다들 나름의 철학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함. 꽃을 좋아하는 분이 자기 나름의 보는 방식에 따라 꽃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고구마나 땅콩을 그릴 때 농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섬세한 부분들이 녹아 있어서 좋았음. 늘 자기 손으로 흙을 만지던 분들의 시선이 역시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그림이 있는 것 같음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아차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아차도는 너무 조용하고, 사람들이 농사일이나 바닷일로 생활하는 데 켜들어 있다고 느꼈음. 여가에 특별한 것이 없었음.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마을 분들이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생기가 넘쳐 나게 된 것 같음. 더욱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변화하는 내적인 변화인데 이것은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내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함. 더 밝아졌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짐. 대화의 내용이 변화한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봄. 자기 세계를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음. 큰 자랑거리이기도 함. 그동안 이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모든 걸 잊어버림
  - 나이가 들면 움직이고 일하는 게 힘들어서 일을 못 하면 자신의 존재감도 떨어짐. 그때 그림을 그리고 문화 활동을 하는 게 좋은 걸 넘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함. 일할 수 없는 분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스스로 성취감도 얻고 그래야 삶이 유지가 됨. 일을 못 하는 나이가 되면 자신에 대한 존재감도 없어지고 또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울증을 없애주는 데도 정말 필요한 것 같음. 오히려 50, 60대는 모를 수

- 97 -

있음. 그런데 70, 80대가 넘어가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 **생계 걱정이 없다면 더 많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 그러함. 간사리 때 일하는 대신 문화 활동을 하는 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바다도 살고 주민들도 살 수 있을 것 같음
- **도시 지역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냐'의 문제임. 처음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참여하다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음. '조금 하다 말겠지'라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음. 프로그램 하나 하고 흐지부지 없어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 한다고 하다 흐지부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참여하지 않음. 섬에 있는 분들이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문제임. 이곳에 오는 작가들은 아차도에 오래 있고, 활동을 계속하니까 '저 사람들은 뭐냐'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잘 참여하는 것 같음

#### □ 김○○ (60대 여,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갈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음.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마음이었던 것 같음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 TV를 봐도 그림 그리는 장면을 유심히 보게 되고 '다음에 이렇게 그려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생활의 변화가 생겼음. 아무것도 없이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착각했을 것 같음. 그만큼 마음의 행복을 찾았던 것 같음
  - 코로나 전에는 연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일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하는 다 막혀버렸음. 그래서 더 우울한 상황임. 그나마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힘이 되고 활력이 됐음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아차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소득이 없으니가 밤에도 몇 톤이라도 벌기 위해 소일거리를 하는데, 아차도 활력을 좀 더 올려줬다고 생각함. '업'시켜 줬음

- 98 -

-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싶음

- **가사노동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습니까?**
  - 나는 혼자가 돼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더욱 어려움. 시간을 더 낼 수 있다면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싶음
- **내 일을 사람들이 많이 인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정해줄 사람이 없고, 인정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함. 울퉁불퉁 우물증 비슷하게 앞났음. '매일 참고 살자.' 그런 마음임

#### □ 송○○ (60대 여,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그림을 그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림에 대해 생각만 함.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그림이 최고임.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조금 시원하게 그려지기는 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함. 그림을 그리지 않는 평소에도 그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함. 이왕 하는 거 잘 해보려고 함
  - 나갔다 올 때마다 물결을 매일 봄. 오늘같이 물결이 잔잔한데도 이렇게 물결치는 데가 있고, 미끈하게 내려가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을 오가며 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함
  - 이런 시골에서 하나 배워보지도 못했는데, 작가 선생이 '이 정도면 내가 보람되게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린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음. 그림에 대해서 정말 명렁구리였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함
  - 다른 사람이 못 해 본 것을, 내가 같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특이하게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함. 처음에는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어림 반 뿐이었는데 느껴졌는데 지금은 신기한 것 같음. 사진도 자주 보게 됨. '내가 어떻게 저것을 딱 집어서 찍을 수가 있었지?'라는 생각도 들어 신기함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 내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암흑에서 더 헤매고 있었을 수도 있었음. 건강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이제껏 내가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이렇게 아픈 것만 남았나'라고 생각했었음.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음

- 99 -

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음. 그림이나 작품을 안 했더라면 점점 더 자신감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살 희망도 잃어버렸을 것 같음. 사는 데 의지나 동기 부여가 됨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아차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개인적으로는 각자 나름대로 변화된 것이 있을 것 같음. 아차도 변화라는 것은 작가 선생님들이 왔을 적에 같이 모여서 그림 그리고, 그림을 같이 보는 게 변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함. 각자 그림이 다 다르니까 다른 만큼 무언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모여 있는 것임. 그림 그릴 당시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진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사는 모습과는 다른 것 같음
  - 정말 일만 하는 사람들이 일할 시간을 쪼개서 모여서, 집중해야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엄청난 변화인 것 같음. 처음에는 후딱 하고 가자고 했는데, 지금은 혼자도 하고, 모여서 할 때는 빨리 가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그리고 가려고 함. 그림에서도 보이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 시간만큼은 아름답고 애들같이 학교 다니며 공부하는 것 같이 순수함
  - 처음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참가자의 그림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계기가 됐음. 사이가 안 좋은 관계도 있는데, 서로 선입견 없이 대하는 느낌을 받기도 함. 그림 그릴 때는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을 많이 함. 아무래도 일만 하면 경쟁을 많이 함. 그림으로는 그런 경쟁을 하지 않음. 일상에서 오가는 대화들이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짐.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도 일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도 하게 됨
  - 그림 그리는 것도 자기 성격 나름이 아닌가 싶음. 그림으로 사람을 조금 이해하는 게 있는 것 같음

- **생계 걱정이 없다면 더 많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 그러함. 내가 생계 걱정 없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늙은 몸에 가를 쓰고 일을 하려고 하겠음.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고, 또 내가 한 것이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음. 예술 활동을 더 하고 싶음. 노래도 하고 싶음. 굳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 마지막 인생길을 조금 고향 있게 살고 싶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우아함도 생기고 맛있는 것도 갖추게 되면 좋겠음. 그러면 경로당에서 밥해 먹고 지지고 볶고 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함. 차 한 잔 마시면서 조금 실증 나면 조금 쉬었다가 마이크 붙잡고 노래도 하고, TV도 보고 그렇게 살면 좋겠음. 애들도 멀리서 우리 얼마 멋지게 산다고 걱정도 안 하고.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

- 100 -

겠는가 생각함

• **가사노동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습니까?**

- 남편이 있었다면 제약을 받았을 것 같음. 왜냐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 여자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임

• **내 일이 사회적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돈을 모으는 집이 있고, 빚을 만드는 집이 있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사실 내 탓이었지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음. 왜냐하면 죽도록 열심히 일했기 때문임. 지금까지 검소하게 살았음

• **도시 지역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분야를 한정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한 달에 몇 번 한 가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체육교실이나 노래교실도 있으면 좋겠음. 다들 발바둥 치는 삶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함. 선생이 올 수 있는 게 문제인데, 국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힘을 써 선생님이 불편하지 않게 와서 가르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바랄 게 없겠음
- 여건이 돼서 가르쳐줄 수 있다면, 여기 사람들도 몰때 맞춰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송○○ (60대 여,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무슨 마음이 있거나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라고 해서 그랬음. 솔직히 강아지가 와서 발로 짚은 것같이 했어도 무조건 잘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잘하는가 싶어 했음. 우리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데, 작가들이 우리 동네에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생을 하면서 오니까 '못해도 오니까 가자, 가서 하나라도 그려보자'라는 마음으로 갔음. 그런데 못했어도 작가들이 잘했고 멋지다고 하면서 칭찬해줘서 계속하게 됐음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 행복했음

- 101 -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아차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는 어르신들이 그림을 정말 잘 그리셨음. 색연필이나 크레용도 잡아보지 않은 분들인데 우리보다 더 잘 그리셨음. 자신 있게 해준 것이 장하고, 보통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셔서 훌륭하다고 생각함. 이제는 일하기 힘든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도전하신 것이 아차도에 좋은 영향을 미침

• **생계 걱정이 없다면 더 많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싶음. 하나 완성하면 성취감도 있음

□ **여○○ (60대 여,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내가 스타가 된 기분이 들었던 것이 사실임. 사진도 찍고 전신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느낌. 우리를 스타 아닌 스타로 만들어 줬다고 생각함. 남들을 위한 스타가 아니라 나만의 스타가 된 것임. 우리는 초등학교 때나 붓을 잡아보고 그림물감도 많이 안 썼음. 그래도 작가들이 와서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임. 많이 위안이 됐고, 그만큼 조금이나마 행복했고, 또 즐거운 마음이 들었음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 우리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기술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생김. 이걸 다시 되살려 줬음
- 가족 내에서도 그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됨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아차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우리 그림으로 고무마 박스를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 고무마 박스를 통해 아차도를 알아보게 되는 변화가 있었음. 사람들이 아차도를 알아보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됐음
- 이곳은 낮에도 밤에도 일해야 해서 다 뽀빠이 흠어져서 살고 있음. 그런데 매일 발과 바다에만 나가던 분도 시간을 내 참여할 만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면서 서로 모이게 됐고, 그림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겼음

•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면 그림을 더 그리고 싶습니까?**

- 더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음.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음

- 102 -

•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좀 더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 우리는 남성과 함께 똑같이 바다에 나가 똑같이 들어옴. 하지만 남자들은 들어와서 씻고 들어가면 끝인데 우리는 밥 준비해야 하고 뒤처리를 해야 함. 빨래도 해야 함. 그 시간에 남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음. '여기서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음. 그래도 집안일이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제약은 있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지는 않았음. 그만큼 즐거운 마음을 주니까 시간을 쪼개서 했음

□ **유○○ (60대 여,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미술 대학에 붙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가지 못했음. 고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나갈 만큼 그림을 잘 그렸는데 계속 잊고 지냈음. 학교 다닐 때 그림을 잘 그렸던 일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음. 요즘 영상 촬영을 해서 작가에게 보내주는데 영상은 순간적으로 놓치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 남편이 붓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을 함.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가 나왔음. 절대 안 하실 것 같은 분이 창고에서 혼자 계속 그림을 그리고 나한테도 그림에 대해 계속 물어보니 흐뭇했음. 내가 못 한 걸 저 사람이 용기 있게 한다는 게 감사했음.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고 애정이 생김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아차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아차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이전에는 이런 쪽으로는 무지했음. 작가들을 통해 다른 세계를 접하면서 희망 같은 것을 느낌. 자기만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됨.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임. 내가 몰랐던 재능을 스스로 알게 된 것임. 거기서 당신들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 고 생각함. 이것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경험임. 자기들만의 잠재의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끄집어낸 것임

• **가사노동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습니까?**

- 당연함. 나는 좀 더 활동적인 것을 하고 싶음

• **도시 지역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함. 이 흐름이 생겼으니 일을 추진해야 함

□ **이○○ (80대 여, 은퇴)**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내가 생각한 것을 그리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짐. 그림 재료를 만져보지도 못해서 처음에는 못 그린다고, 절대 안 한다고 했음. 소학교라도 다닌 사람은 하나라도 그려봤을 텐데 생긴 연필도 붙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음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해서 극성맞게 일했음.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없음. 나는 마음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것에만 집중하니까 좋음. 전에 우리 오빠가 그렇게 바쁜데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싶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됨
- 최근에 김포대교를 갈 일이 있었는데, '저 나무를 보고 그려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음. 아들에게 잠깐만 올라가 보자고 얘기를 했음. 그것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싶었음. 다니면서도 그냥 안 다니고 유심히 보게 됨. 아들이 엄마는 걸을 때 왜 앞을 보지 않고 댄 데를 보면서 걷느냐고 물었음. 관찰하느라, 이것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 보게 됨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아차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다들 그림을 그리게 됐음. 누가 잘 그린다는 것을 알게 됐음

- 103 -

- 104 -

□ 전○○ (60대, 남,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표현을 할 수가 없음.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가슴에 와 닿았음. 그림은 자기 마음의 표현임. 어르신들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린 것 아닌가 싶음. 사진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으니까 찍을 수 있는 것임. 그림이란 사진이란 보는 눈이 시시각각 사람마다 다름. 마음이 딱 집중되는 게 좋음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 작가들 때문에 처음 붓을 잡아서 그림. 어르신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겠다고 생각함. 하지만 시간이 안 될 때가 많았음. 그림을 그리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힘들면 하기 어려웠음. 그래도 한번 그려보니까 계속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음. 작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음. 그림의 기억도 몰랐는데 창고가 아틀리에가 됐음.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잘하신다'라는 말도 하게 됐음
- 생계 걱정이 없다면 더 많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 하고 싶음. 남자들이 변화해야 하는데 오직 나가서 일만 함. 취미가 별로 없음

□ 정○○ (80대 여, 은퇴)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그림 그릴 때 기분이 좋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며 그림. 하지만 점점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는 그런 희망을 가지지 못함. 손주가 '할머니 갑갑한데 그림 그리러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파서 못 한다고 하니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함. 그림을 보내주니 손주가 참 좋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면 할까 싶음. 다른 사람들 그림 볼 때는 '부럽다, 잘 그렸네' 그런 생각을 함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함. 하지만 그림을 그리니까 그리는 걸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음

- 105 -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아차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아차도가 달라졌다고 느낌.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 이런 저런 걸 하니 사람이 사는 것이고, 이것저것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은 것임. 아차도가 더 좋아진 것 같음. 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냥 소 닭 보듯 했는데 이제는 만나서 말도 좀 하고 좋아지는 것 같음
- 도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것임

□ 조○○ (80대, 여,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깨달을 때마다 배운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좋음.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볼 때도 잘 그린다고 생각하고 의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음. 내가 소질이 있어서 잘 그린다고보다는 아직까지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아쉬움이 남음. 그것 때문에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 평소에 아름다운 풍경이나 집에 있는 화분을 보고 있으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함. 가족들도 그림 그리는 데에 관심을 보임. 남편이 꽃을 가져와서 그리라고 하고 며느리와 딸, 사위는 내가 그린 것을 하나하나 다 찍어감. 남편이 화가보다 낫다고도 하면서 더 그리면 좋겠다고 함. 일을 못하고 계속 놀게 되면 심심할 것 같음. 밥을 차려 먹을 시간이 없는데 그림을 그리러 올 때도 있음
-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아차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농사와 바닷일로 다른 데보다 일이 많아서 놀 시간이 없음. 그런데 그림 때문에 모여서 얘기도 하고 분위기가 더 나아진 것 같음. 아차도에 조금 변화가 생겼다는 느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만나서 작가들 얘기를 많이 함. 일만 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좋고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하면 좋겠음
- 생계 걱정이 없다면 더 많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노후대책이 있다면 미술을 더 많이 하고 싶음

- 106 -

- 도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선생님도 꼭 필요함. 아무리 작가 선생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오랫동안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뒷받침이 없으면 어려움

## V. 학습과제 제안과 활용방안

### 1. 타겟그룹 별 학습과제 도출

#### 1)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과제

-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미 평생교육이나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치가 높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르중심교육을 전형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급이 필요
  - 특히 젊은 편인 베이비붐 세대들을 삶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이제 막 삶의 정점을 지난 경우가 많아 일에 대한 의욕도 높고 역량도 풍부한 편으로 단순 여가나 소일거리만이 아니라 직업으로써 수입과 연결되는 취, 창업 연결도 필요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는 방향의 프로그램도 필요
- ☐ 디지털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베이비부머들은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순

발력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이 필요

- 특히 베이비부머들은 단순히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방법을 익히는 교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과 예술교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한 디지털 활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 심신의 건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인지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치매에 대한 불안이 높았으며, 인지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 따라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아닌 은퇴와 노후의 불안을 덜어내고, 인지적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 웰다잉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베이비부머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자기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가치있고 의미있는 노년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노년과 죽음의 '삶의 끝'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서의 웰다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노년과 죽음에 대한 성공적 노화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자 함. 이러한 맥락에서 웰다잉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급 필요

#### 2)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이상 남성을 위한 과제

- ☐ 학습자 요구에 부응할 지 여부
  - 앞서 인터뷰를 통한 유형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잠재적인 문화예술교육 학습자(수요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마다의 기대와 목적으로 접근
  - 그 중에는 열린 공동체를 위한 사고와 욕망의 소유자도 있으나 반대로 자기 한계적, 자기 반복적인 성향의 주체도 있음
  - 이럴 경우 이들의 요구를 단순히 충족시켜 주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기회 자체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 학습자 성향 파악, 적극적인 변화 시도
  - 잠재적인 문화예술교육 학습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사고, 욕망의 소유자임을 인식, 이를 전제해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으로 보다 열린 주체로의 변화 도모
  - 그러나 자칫 지나친 목적 지향적 접근으로 거부감 유발 가능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다각적이고도 입체적인 프로그램 마련 및 진행 필요
  - 이를테면 각 학습자의 특성과 환경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사회적 관계 맺기, 소통하기, 변화한 사회적 가치 이해해 보기 등과 같은 과제와 방법 검토
- ☐ '학습자'의 기대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나'의 방식을 통해 보다 열린 사고와 태도 및 원활한 소통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개인적인 경험과 사고, 욕망에 관심을 가져주면서도 각 학습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그 '차이'를 인식케 하고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자기 열림과 확장의 기회 마련
- 특정 시대와 상황, 국면 속에서 개인 감각의 불균형적 발달과 활용이 있음을 전제, 이를 새롭게 발견하고 드러내고 관계 맺는 방법과 과정 속에서 변화된 주체를 기대
- 이를 함께 해나가는 시간과 장소 속에서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일원으로서의 자기 존재 인정과 존중, 즐거움과 보람을 경험함으로써 지속적인 열림과 성숙 기대



- 노년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생활은 여행. 나이와 취향, 입맛에 맞는 여행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

□ 사회적 기여

- 설문결과를 보면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보람된 활동을 하고 싶다는 문항에 5점 척도에서 3.81로 2위를 차지. 노후의 여유시간과 에너지를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음
-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은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며 자아존감을 형성하는 과제가 될 수 있음. 특히 인생의 마무리단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의미있는 과제가 됨

### 3) 노년 학습과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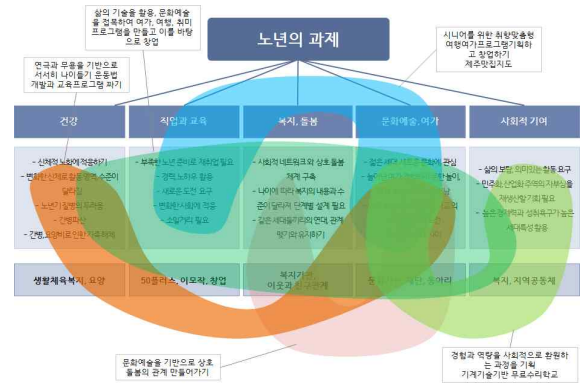
□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학습과제 유형분류

-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학습과제들을 유형으로 분류함
- 학습과제를 다음과 같은 유형의 목표로 설계할 수 있음

과제유형	내용
문제 해결형	관계 만들기, 보수성 타파, 세대 간 이해와 소통
사회 기여, 복지형	봉사, 사회적 기업, 노인형 돌봄네트워크
성장, 이모작 설계형	뉴 미디어 학습과 활용, 패러다임 변화, 혁신과 창업
창의형	노인과제 집중, 노인 관점의 창작
욕구해소, 일상지원 지지	일상성 지원, 장르예술습득, 취미
자아존중감, 마무리	인생스토리텔링, 노년설계, 유산정리, 웰다잉 준비

〈표 47〉 노년 학습과제 유형분류

### 3. 활용방향



[그림 24] 노년의 과제 활용방향

-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학습과제들은 학교 교육과 같이 체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학습자의 상황, 이전 학습수준과 내용, 학습환경을 고려하고 주된 학습과제를 도출하여 과제중심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권장
- 문화예술의 특성상 특정 예술장르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도 다른 장르의 교육방법론을 활용하는 융복합 과정으로 설계하여 과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
- 학습과제는 단독으로 다룰 수 있지만 생애설계, 관심사에 따라 과제들을 복합하여 설계하는 것이 적절
- 예를 들면 과거 청년기에 유행하던 대중문화와 청년세대들의 대중문화

를 비교하여 차이를 찾아보기, 지금의 청년이 된다면 해보고 싶은 일들로 버킷리스트를 짜기, 청년기에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하며 동시대의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등



[그림 25] 노년의 과제 활용방향 예시

\* 다양한 활용 사례는 '별첨 1'의 워크숍 내용을 참고



별첨1. 노년 문화예술교육 학습과제 워크숍

1. 워크숍 개요

- 제 목: 2020 노년 문화예술교육 브레인스토밍 해커톤 워크숍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 일 시: 2020년 12월 18일(금) 14시~18시
- 방 식: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진행
- 참 여 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및 강사 17명
- 장 소: 인천아트플랫폼
- 참 가 자:

구분	이름	비고
진행	변순영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진행	황희천	담당자
기록	김영경, 김민지, 윤난영, 최라윤	인천문화재단
퍼실리테이터, 연구발표	윤현옥	문화공작소 아하 대표
퍼실리테이터, 연구발표	김은영	공연예술연구소 POISE 대표
퍼실리테이터, 연구발표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
퍼실리테이터, 연구발표	박유미	공간성알 대표
퍼실리테이터, 설문발표	주란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통합과정
기획자, 강사 외	김가희, 김진수, 박금옥, 박유진, 고보경, 김사내, 곡선경, 김진영, 최정운, 안화진, 권순금, 김승애, 김태희, 조은정, 김정애, 조윤경, 한혜성(무순)	

- 주요 내용:
  - 2020년 노년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조사, 연구내용 발표
  - 설문조사 분석내용 발표
  - 팀별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연습
- 상세 일정:

세션	시간	주요내용	발표 및 진행
1	14:00 ~ 14:10(*10)	사업 소개	변순영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14:10 ~ 14:25(*15)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 기본 조사	윤현옥 (문화공작소 아하 대표)
	14:25 ~ 14:40(*15)	인천 지역의 노년 설문조사 결과	주란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통합과정)
	14:40 ~ 14:55(*15)	인터뷰그룹1 :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김은영 (공연예술연구소 POISE 대표)
	14:55 ~ 15:10(*15)	인터뷰그룹2 : 원도심 내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이상의 남성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
	15:10 ~ 15:25(*15)	인터뷰그룹3 :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성지역 노년 여성	박유미 (공간성알 대표)
2	15:40 ~ 17:00(*80)	교육프로그램 개발 브레인스토밍 (4개 테이블 분리 진행)	퍼실리테이터(윤현옥, 김은영, 민운기, 박유미)
3	17:10 ~ 17:50(*40)	브레인스토밍 결과 공유	전체

2. 버킷리스트와 인생마무리

- 참여자

팀진행	윤현옥, 주란
참가자	김가희, 김진수, 박금옥

- 주요 내용
  - 워크숍 앞부분에서 기초조사 내용, 설문조사분석 내용, 각 연구자들이 발표한 대상별 설문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학습과제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해 봄
  - 특히 노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 경험, 요구들과 경험하지 못해본 것 해보기와 같은 과제에 집중
  - 참여자들의 전공이 미술, 무용, 연극으로 다양해 자연스럽게 여러 장르를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로 방향을 잡음
  - 브레인스토밍으로 각각 아이디어를 내고 이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
  - 장리적 기능보다는 제한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인가에 집중. 추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때 장리적인 특성과 장점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프로그램 안

프로그램명	버킷리스트와 인생마무리		주요분야	미술, 음악, 무용
교육주제	버킷리스트를 통해 인생 돌아보고 마무리 준비하기			
교육목표	다양한 장르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대상	노인			
세부교육 구성내용				
단계	활동목표	활동 내용(요약)		
도입	동기부여 관심환기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 동안 해보고 싶었으나 못해본 것은 무엇인지) 그 때 그 시절, 그 춤춰보기 (고고장, 추억 속 장소에서 했던 춤을 떠올리며) 우리 몸 들여다보기 현재의 나이들, 일상 생활 속의 나이들 (점점 노화되어가는 나의 피부, 주름살 들여다보기)		
전개	브레인스 토밍 상상하기	여행, 바캉스, 놀기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 여행 계획하기, 5-60대가 좋아하는 음식점(맛집) 지도 만들기) 현재의 나, 주름의 모양, 깊이 (과거-현재-미래, 현재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이들에 따라 노화되는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기) 웰다잉Well-Dying 인생을 마무리하며- (남은 인생에 대한 결말을 창작/만들어보기, 춤과 그림, 과거 그리고 현재 사진 작업)		
정리	확장 창작	몸의 움직임- 막춤, 해방춤 추기 (예시: 서울시립미술관 안은마 현대무용+퍼포먼스 작업, 영화 마더의 마지막 장면-김혜자의 춤 등) 시대별 유행 춤 추기, 의상 재현 및 제작 (직접 만든 의상으로 패션쇼, 여행할 때 입어보고 싶은 의상 코드)		

3.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참여자

팀진행	김은영
참가자	박유진, 고보경, 김시내, 박선경
기록	김영경

□ 교육프로그램 안

프로그램명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주요분야	융복합프로그램
교육주제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기(창의적인 웰다잉 준비)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양한 예술을 통해 지나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경험한다.</li><li>- 나와 관련된 소중한 관계들을 돌아켜보며 진정한 '나'를 이해한다.</li><li>- 노년과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다.</li></ul>		
교육대상	인천시 연고를 둔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교육대상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현재 58-66세 해당</li><li>- 한국사회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의 주역</li><li>- 산업화의 성공으로 이전 세대보다 경제적 풍요를 경험한 세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느라 자신의 노후준비는 미흡</li><li>- 자신들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함</li><li>- 은퇴 이후에도 생계형 일자리를 희망함</li></ul>		
세부교육 구성내용			
회차	활동명	활동 목표	활동 내용(요약)
1	몸 열기, 마음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 이해</li><li>-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li><li>- 자발성과 창의성 촉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즉흥극을 활용한 친밀감과 신뢰감 높이기</li><li>- 중어로 표현하는 '나' (연극, 미술 활용)</li></ul>

2	내 인생의 퍼포먼스	- 자기표출 - 자기발견 - 자발성과 창의성 향상	- 나의 사진 전시회(과거와 현재의 나) - 자화상 그리기(현재 또는 미래의 나) - 타악기를 통한 자기표현 (사진, 미술, 국악 활용)
3	몸으로 '나'읽기	- 자기표현 - 자기탐색 및 이해 - 자기성찰 - 자발성과 창의성 향상	- 영상하며 나를 들여다보기 - 움직임으로 '나'를 말해보요 (영상, 음악, 무용 활용)
4	처음 쓰는 편지	- 인간관계 회복 - 자기와 타자 수용 - 자기성찰 - 자기존중	- 문학 속 편지글 살펴보기 - 나와와 소중한 관계들을 돌아켜보며 그들에게 편지쓰기 - 이때, 수신자는 나, 배우자, 자녀, 또는 떠오르는 그 사람 중 선택하여 편지쓰기 (문학, 음악, 영상 활용)
5	낭독극 발표와 나누기	- 자기성찰 - 노년, 죽음에 대한 긍정적 자기인식 확인	- 전 시간에 쓴 편지를 낭독극으로 발전시켜 연습하기 - 편지 낭독극(또는 낭독영상) 발표 -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4. 청춘 놀이터

□ 참여자

팀진행	민운기
참가자	김진영, 최정윤, 안희진
기록	김민지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모둠형	공동( ○ )
	각자( )
개별 맞춤형	공동( )
	각자( ○ )

□ 교육프로그램 안

프로그램명	청춘 놀이터(가칭)	주요분야	복합영역
교육주제	각자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소개하여 서로는 물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일 또는 사업)을 도모해본다.		
교육목표	- 참가자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면서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할 역할 모색 - 참가자 개개인의 과거를 바탕으로 지역과 현재를 새롭게 이해하고 활력 있는 미래 설계 및 활동 - 참가자들이 수동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활동 주체로 나서고, 개인과 팀 작업 병행 실시 - 경제적 소득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참가자들의 창작과 표현 역량 향상 및 사업화 가능성 타진		
교육대상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60대 이상의 원도심 거주 남성		
교육대상의 특성	- 젊은 시절을 산업 현장 및 관련 업종에 종사 - 근대화 시기의 발전, 개발, 성장 논리에 익숙하고 젊은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	- 가족 부양의무와 책임을 지나다 보니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과 투자 부족 - 개인적인 여건으로 인해 문화 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부족 및 부족 - 사회적 역할과 관심, 경제적인 능력 저하로 점차 고립화, 자존감 상실
세부교육 구성내용			
회차	활동명	활동 목표	활동 내용(요약)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및 간단 인사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 방식을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서로 인사를 나눈다.
	인생박물관 만들기	지나온 삶 돌아보기와 이를 통한 상호 이해	각자가 지나온 과거를 설명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사진 또는 영상)나 물건(소품)들을 저마다의 방식(시간대/사건대/인생주기별/추억/취미 등)으로 배치한 후 서로 둘러보며 감명한 후 저마다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세대공감	현 세대와의 소통과 교감	어렸을 적 자신의 취미(예: 우표수집) 및 관련된 자료를 자녀 세대들에게 직접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이들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누어 본다. 저마다 진행한 내용을 가지고 나와 발표하며 내가 다시 젊은 나이로 살아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상상해보고 돌아가며 발표한 다.
3	시간여행	개인과 지역의 이야기 공유 및 새로운 이해	각자가 자신에게 남다른 사연이 있었거나 시대적·장소적 스토리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그 내용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기대한다.
4	지역여행	다큐 취재 및 편집 역량 증진	참가자들이 역할을 분담, 취재 식으로 촬영 및 편집하여 완성된 결과물을 온라인에 탑재하거나 인터넷 매체에 게시한다. 이를 통해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이를 위한 기금

			모금(펀딩)도 시도해본다.
5	상황극 만들기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연극 만들기와 공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축출)연극을 만들어 발표회(공연)를 가진다. -스토리 결정/(대략적인)시나리오 작성
6			-배우 선정-연습-발표(공연) 준비 *무대, 소품, 의상 등
7			발표(공연)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순회 공연 가능 *온라인 상영
8 (수시)	도시농부	공동텃밭 가꾸기	적당한 규모의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함께 텃밭을 유기농으로 가꾸며 친목을 도모하고 생산물을 나누거나 판매하여 소득을 창출한다. *수확물을 다음 회차 프로그램인 요리 재료로도 활용 가능
9	보약밥상 알아보기	친환경 농산물과 효능 알아보기	농해산물의 특성과 효능을 알아보고, 요리에 사용할 (직접 키웠거나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식재료를 준비한다.
10	나도 요리사	건강 식탁 차리기	준비해 온 재료로 각자 또는 모듬별로 요리를 한 후 서로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대접한다.
	종로	시식회와 총평가회	함께 나누어 먹으며 지난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눈 후 종료한다. *향후 모임을 계속 이어갈 방안 상의

## 5. 공간 너머 공감

### □ 참여자

팀진행	박유미
참가자	권순금, 김승애, 김태희, 조은정
기록	최라윤

### □ 주요 내용

- 아차도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관한 질문 답변
- 노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 공유
- 코로나 19로 인해 달라진 문화예술 활동과 소통 방식 논의
- 사회적 연결망이 취약하고 디지털 문화에 소외된 노년을 위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방안

### □ 교육프로그램 안

프로그램명	공간 너머 공감	주요분야	융합예술
교육주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단조롭게 느껴지는 일상을 창의적으로 재건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심리적으로 고립을 초래하는 팬데믹 시기에 노년의 생활환경에 관심을 쏟고 그들의 고립감을 완화해 주는 예술 활동을 실천한다.</li> <li>- 일상성을 지지하는 나만의 작은 기쁨과 성취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공감과 지지가 형성된다.</li> <li>- 접근성이 낮은 비대면 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소외를 완화하고 새로운 문화와 사회적 경험을 확장한다.</li> </ul>		

교육대상	사회적 연결망이 취약하거나 디지털 소통에 관심 있는 노년	
교육대상의 특성 및 교육대상 선정이유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사회적 연결망과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노년의 일상선 무기력과 단조로움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노년의 삶에 활력과 안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서적 지원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세부교육 구성내용		
단계	활동 목표	활동 내용(요약)
도입	[시작하기] 마음 열기 접속하기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나의 관심사,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즐겨 보는 콘텐츠,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 요즘 하고 싶거나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 등을 소개하기</li><li>○ 글, 음성 녹음, 사진/비디오 촬영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나를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하기</li><li>예)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 사진으로 남기기, 셀프 카메라로 나를 소개하는 영상 촬영하기, 휴대폰으로 녹음한 자기소개 음성 파일 올리기</li><li>○ 온라인에 업로드 된 다른 참여자의 소개 중에 관심이 생기는 콘텐츠에 반응 남기기</li></ul>
전개	[일상생활 탐험하기] 들여다보기 발견하기 도전하기 표현하기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내 몸과 마음, 주변 공간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느끼며 하루 하루의 일과에 집중하기</li><li>예) 습관적으로 마시던 차나 커피를 가장 예쁜 잔에 담아 마시면서 맛과 향을 만끽하기</li><li>○ 습관적인 선택을 버리고 새롭고 낯선 행동 실천하기</li><li>예) 익숙한 산책로 외에 다른 길을 찾아 걸기, 시아가 트인 곳에서 하늘 바라보기</li><li>○ 집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공간, 내가 소중히 여기거나 자주 사용하는 사물에 나의 취향 더하기</li><li>예) 책상 위 스탠드의 전구를 바꾸고 나의 그림으로 만든 갓 씌우기, 재활용품만으로 생활용품 만들어보기</li><li>○ 다양한 나만의 일상을 온라인에 꾸준히 공유하고 온라인 관계망 형성하기</li><li>예)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해 개설된 SNS에 글, 사진, 비디오, 등</li></ul>

		의 파일 전송하기
정리	[재충전하기] 같이 보고 즐기기 돌아보기 변화 감지하기 연대감 느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가 보내준 파일, 그에 관한 반응 등을 모아 편집하여 축제 형식의 상영회 개최하기</li> <li>○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타인의 이야기와 생활양식에 주목하고 반응하여 공감능력 향상하기</li> <li>○ 내용, 주제, 장르 별로 범주화하여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삶 조명하고 연대하기</li> <li>○ 관심사가 맞는 소그룹이나 새로운 주제별로 또 다른 활동 이어가기</li> </ul>

별첨2. 설문지

인천 실버세대 문화예술교육  
학습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번호

조사자

바쁘신 중에 도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인천 실버세대 문화예술교육 학습  
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주신 설문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되며, 연구 종료 후 응답 내용은 모두 파기됩니다.

I. 현재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현재 소득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네

② 아니오

2. 예전에 비해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면, 늘어난 가용시간의 **잘잘**은 무엇입니까?

① 가족관계가 좋아짐

② 평소 해보고 싶던 취미, 여가, 학습시간 활용

③ 평소의 재능을 살린 활동을 자유롭게 함

④ 나의 인생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음

⑤ 기타 ( )

3. 예전에 비해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면, 늘어난 가용시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① 가족관계가 나빠짐

② 무료한 여가와 활동부족으로 인한 무기력

③ 수입 감소로 인한 여가비용 부족

④ 인생의 의미를 찾기 못하여 허무함

⑤ 사회적 지위, 존재감 약화로 인한 자신감 감소

⑥ 기타 ( )

4. 귀하가 노년(현재)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무엇입니까?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② 인간관계(가족, 친구, 공동체 등)	①	②	③	④	⑤
③ 소망거리	①	②	③	④	⑤
④ 경제력	①	②	③	④	⑤
⑤ 자아 존중감 유지와 확인	①	②	③	④	⑤
⑥ 새로운 도전과 성찰로 인생을 완성	①	②	③	④	⑤

⑦기타( )

5. 귀하의 현재 삶에 관한 태도와 생각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성장기의 교육과 경험

② 신문, 방송과 같은 대중 미디어

③ 유튜브, 인터넷

④ 공공기관, 문화센터

⑤ 사람들과의 의견교환

⑥ 책, 칼럼 등 도서, 전시, 공연 관람, 토론을 통한 성장

⑦ 기타 ( )

6. 귀하는 살면서 축적한 자신만의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네

② 아니오

6-1. ②번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련 기회가 부족해서

② 현재 시점에 잘 맞지 않음

③ 나이가 많아서

④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거나 존중받지 못해서

III.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13. 귀하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음악, 미술, 연극 등을 배워 예술가가 되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②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③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인생을 고양시키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④ 흥미로운 취미와 여가활동과 함께 교양을 쌓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⑤ 소통과 이해역량을 높여 다양하고 활발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직업(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술을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의 기술과 지식을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하고 싶다(강사, 활동가 등).	①	②	③	④	⑤
⑧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⑨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보람된 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IV. 응답자 특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1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15. 귀하의 해당 만 나이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40~49세

② 50~59세

③ 60~69세

④ 70~79세

⑤ 80~89세

⑥ 90세 이상

16. 귀하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인천광역시

② 인천 외 지역의 경우 ( )시/도 ( )동

16-1. ②번으로 응답한 경우) 이전에 인천에 거주했거나 직업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17. 귀하의 이전(현재)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회사원

② 전문직

③ 생산직

④ 교육/공무원

⑤ 자영업

⑥ 주부

⑦ 무직

⑧ 기타( )

18. 귀하의 최종학력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졸업 이상

19. 귀하의 가구 월평균 소득 혹은 연금 등 가용 예산을 표시해 주세요.

① 월 50만원 이하

② 월 50~100만원

③ 월 100~200만원

④ 월 200~300만원

⑤ 월 300만원 이상

- 귀한 시간을 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3 -

- 135 -

7. 귀하는 경제활동과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여가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며 보내십니까?

① 취미여가생활(음악, 독서, 그림, TV 시청 등)

② 자아성찰을 위한 학습

③ 가족, 돌봄

④ 봉사 등 사회적 가치추구 활동

⑤ 인터넷, 유튜브, 밴드 등의 SNS 활동

⑥ 기타( )

8. 경제활동시간과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집

② 동네(마을 수목, 골목길, 이웃집 등)

③ 복지관, 노인정 등 공공시설

④ 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⑤ 기타( )

II.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필요성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9. 귀하는 문화예술교육이나 평생교육 등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9-1. ①번에 답한 경우만) 문화예술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해보셨습니까?

① 신문, 방송, 현수막, 동사무소 등에서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② 직접 신청해서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③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적이 있다.

④ 직간접적으로 기획에 참여해 아이디어나 의견을 적용하는 등의 역할을 해본 적이 있다.

⑤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해본 적이 있다.

10. 프로그램을 접하거나 참여하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복수응답)

① 같이 할 친구가 없거나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아서

② 프로그램의 내용이 쓸모가 없고 나의 필요에 맞지 않음

③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없음

④ 취미활동에만 머물러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성찰에 도움이 안 됨

⑤ 시간, 비용, 접근성 등 개인적인 이유

⑥ 기타 ( )

11.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귀하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네

② 아니오

12. 현재 귀하의 삶에서 해결해야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젊은 세대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②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③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④ 사회정치적인 흐름의 속도를 놓쳐 뒤처질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⑤ 소속감이 없어 외롭고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⑦ 직장, 현업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⑧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고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기타 주관식 ( )

- 2 -

- 134 -

참고문헌

강인(2016).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 16(9), 460-471.

강현정, 김윤정(2017). 충남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경험, 요구도 및 참여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9), 735-745.

공실제로. 강하군 서도면 인구현황. <https://www.osilzero.com/1318>.

박노필(2019. 04. 22.). **세대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책무**.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890981.html>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세종: 교육부.

김충남, 한정란(2017). 베이비붐 세대 부모의 부양기대와 예코붐 세대 자녀의 부양의식. **노년교육연구**, 3(2), 81-96.

나일주, 임찬영, 박소화(2008).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 : 국가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노년복지연구**, 42, 151-174.

남희경, 한정란(2020). 베이비붐부 공무원의 은퇴 태도 및 은퇴 불안. **노년교육연구**, 6(1), 45-62.

변미리(2010).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도시의 미래를 변화시킨다**. SDI 정책리포트. <https://www.si.re.kr/node/42549>

서울문화재단(2015). 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노년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2228](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2228)

신계수, 정경희, 조성숙(2011).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 만족도와 경제적 은퇴준비 실태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5(3), 41-50.

신성희(2008). 인천시 문화지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근대시기 문화자원 밀집 지역을 사례로.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안민혜(2012). **베이비붐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양정선(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 경제활동 희망과 정책적 지원도색. **한국가족복지학**, 18(2), 59-79.

양지훈, 서중수(2020). 예비노인세대의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행정논집**, 32(2), 203-219.

이경호(2005. 04. 28.). **교수설계란 무엇인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lboman&logNo=12327924&proxyReferer=http:%2F%2F59.29.251.41%2F>

이미션(201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부 부양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 136 -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이윤희(2002). 인천 시민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연구. **인천학연구**, 1, 9-32.

이인경(2017).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의 우울 수준 및 우울 관련요인 비교: 일상적인 근심의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38, 1-24.

이태열(2020). 세대별 노인 문제의 심각성 비교.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488, 4-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http://icloud.incheon.go.kr/arcgis/apps/MapSeries/index.html?appid=38571ee6a8b741aab58b78bf8c02cac8>.

임정미(2020).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20, 45-55.

윤혜진(2018). 베이비부머와 이후 세대들의 관광 활동과 행복감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73(4), 333-359.

전수경, 류숙희(2016). 노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및 시사점. **인문사회** 21, 7(4), 637-654.

전용호(2019).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과 향후 과제**. 현안과정책, 267.

전병주, 한혜숙(2019).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 Rowe & Kahn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10), 69-83.

통계청(2017). **2017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통계청(2019a). **2018년 주택소유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0/4/index.board?bmode=read&aSeq=378776](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0/4/index.board?bmode=read&aSeq=378776)

통계청(2019b).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_OECD](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_OECD)

한국고용정보원(2018). **신중년 경력개발 상담자를 위한 역량강화서**.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Battersby, D., & Glendenning F. (1992), Reconstructing education for older adults: An elaboration of the Statement of First Principles, **Australian Journal of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32(2), 115-21.

Habermas, J.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한승완 역). 파주: 나남.

Neugarten, B., Moorn, J., & Low (1995). Age constraints and adults socialization. **Am J Social**, 70(6), 710-717.

## 2020년 노년 문화예술교육사업 결과보고서

연구진	윤현옥 총괄기획자
	김은영 기획자
	민운기 기획자
	박유미 기획자, 정은희 보조 연구원
	주 란 연구원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인천문화재단